



사단법인 **인간개발연구원**



좋은사람 좋은세상

Better People Better World

2011.01+02

통권 제103호 (비매품) 등록번호 서울 마 03200 발행일 2011년 01월 05일
발행인 장만기 편집 정용달 TEL 02-2203-3500(대) FAX 02-2203-1974
디자인 하나로애드컴(www.hanaroad.com) 인쇄 (주)광진문화
주소 135-280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6-4 동성빌딩 202호(www.khdi.or.kr)

Cover Story 박재갑 국립중앙의료원 원장
잠자는 조직을 깨우는
박재갑 원장의 개혁스토리

머릿글 차동엽 미래사목연구소 소장
1·2월 프로그램

Issue&Seminar

- 이재오 특임장관

- 남주홍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

Hot&Issue 대한민국역사박물관

Membership Day

- 제7회 찾아가는 CEO교실 포스코 광양제철소

- 2010 인경회배 추계 친선골프대회

회원&연구원소식

2010 인간개발연구원 송년의 밤

아카데미 뉴스

2010 교육현황

발행인편지

크리스천 리더스 아카데미

Special Focus CEO 미디어 스피치 2기

명사초청특강 정성현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이사장

전영기칼럼



다들 나에게 배우니다

거상 김만덕의 고향 제주에 가면
 그녀의 특별한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평생 모은 재산으로
 굶주린 제주 백성을 살려낸 나눔의 삶!
 장사란 홀로 하는 것이 아니니
 나의 이익만 셈하지 말며
 재물은 낮은 데로 흐르게 하라는
 배려의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아름다운 전통이 된 그 가르침 앞에서
 세상을 함께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posco
 소리없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www.posco.com

스마트의 미래, 바보형 인재

“스마트사회에 어떻게 적응하며 살까? 어떻게 해야 화살처럼 빠른 변화의 속도를 따라 잡을 수 있을까? 나이 든 세대의 고민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이에 대한 답 없이는 스스로 낙오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 탓입니다.”

첨단 이슈를 앞서 포착하여 경제계 리더들에게 발 빠르게 전하기로 유명한 권대우 회장은 '이코노믹 리뷰' [2010년 11월 30일자]에서 이렇듯 진솔하게 소회를 적었다. 남세스러운 일이지만 그는 그 답을 좇아 <바보 Zone>에서 역설적으로 찾았다고 언급하며, 필자의 생동한 주장에 맞장구를 쳐주었다.

왜 이 'Super-smart' 시대에 하필 바보론인가? 밝히거니와 '바보' 담론은 지난날의 실존적 내지 체제적 대안 차원을 넘어, 이미 '바보 인재론' 또는 '바보 리더십'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까지 진화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스마트' 폰을 개발한 스티브 잡스(Steve Jobs) 애플 회장은 정작 2005년 스탠포드대학 졸업식 축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Stay hungry, stay foolish"를 외치며 '바보 인재론'을 펼쳤다. 그의 논지는 교실 속 학습능력이 뛰어난 종래의 '스마트형 인재'보다 미래에는 "바보처럼 꿈꾸고, 바보처럼 상상하고, 바보처럼 모험"하는 '바보형 인재'가 더 통한다는 것이었다.

그뿐인가. 2010년 이탈리아 패션브랜드 디젤(DIESEL)은 '스마트? NO!'라는 광고문구로 세계인의 시선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그 요지는 '스마트'에게는 머리, 곧 뇌와 계획과 비판이 있지만 '바보'에게는 심장, 곧 배짱과 이야기와 행동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똑똑한 인재는 진정한 룰 브레이커(rule breaker)가 될 수 없지만, 바보형 인재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이다.

편의상 임의로 차용한 이 두 발상은 단지 공허한 주창이 아니다. 그 뒤에는 신화(神話)로 우뚝 선, 추앙받고 있는 술탄 증인들이 있다. 스티브 잡스는 그 자신이 천상 '바보'였음을 파란만장한 롤러코스터 일생을 내세우며 자임하였다. 일본의 '센몬빠가'(전문바보) 예찬 문화는 노벨상 수상자 18명을 배출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미국의 '백치천재'(idiot savant) 연구는 바보들에 내장되어 있는 거인의 발굴에 성공하였다. 일제의 침략으로 그 맥이 끊겼지만 조선 후기 실학자들 역시 벽치(僻知) 정신으로 실

학(實學)의 기초를 놓는 일에 골몰하였다.

바보 퍼레이드는 계속 진행 중이다. 지난 12월 초 미국 NASA는 "지구상 모든 생명체는 오직 6개의 원소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통설을 깬 연구결과를 발표하여 지구촌을 큰 충격에 빠트렸는데, 그 주역 펠리사(Felisa)는 학계에서 줄곧 '바보'로 낙인찍혀 있던 소장파 학자였다.

깨달음은 갑자기 온다. 하지만 그 시원(始原)은 고뇌의 역사만큼 아득히 태고로 거슬러 존재한다. 아이러니하게도 필자에게 불현듯 영감을 준 3000년기 세계적 프런티어들의 '바보' 대안론의 미래를, 필자는 2500년 전의 인물 노자의 저 유명한 말 대지약우(大智若愚)에서 발견한다. "큰 지혜는 어리석어 보이는 법!(大智若愚)"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이 결국은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된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여 미래는 지식경쟁의 시대에서 지혜공유의 시대로 치달고 있다. 그렇다면 노자의 말은 장엄하게 "미래는 바보의 것이고, 미래의 판도는 바보스러움이 쥐고 흔들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셈이 된다. 마침내 노자와 스티브 잡스의 패러독스는 미래의 미래의 약속, 미래의 미래의 미래의 비전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문제는 천재가 부족한 데에 있지 않고, 오히려 진정한 바보가 모자라는 데에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차동엽**



●차동엽 신부

1981년 서울대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이후 서울 가톨릭대, 오스트리아 빈대학, 미국 보스턴대학 등에서 수학했고, 빈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991년 사제로 서품되었다. 현재 베스트셀러 <바보 Zone>을 비롯해 밀리언셀러 <무지개 원리>, <뿌리 깊은 희망>, <행복선언> 외 다수의 저서를 통해 참다운 삶으로 이끄는 지혜를 전하고 있다. 활발한 강연 활동과 TV특강을 통해 '인생 해설가'라는 별칭도 얻었다. 현재 인천교구 미래사목연구소 소장이자 인천가톨릭대 교수로 봉직하고 있다.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프로그램

매주 목요일 07:00~09:00

〈신년하례회〉

■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미래 희망과 도전

제1675회 1월 6일(목)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김진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위원회 위원장 /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대한민국의 발전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2013년 2월 개관을 목표로 지난해 11월 광화문 옛 문화체육관광부 청사에서 착공됐다. 이는 2008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 기적의 역사를 기록하고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역사박물관을 짓겠다'고 공표한 후 추진된 일이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건국 이후 나라의 틀이 안정된 후 세계 역사에 일찍이 없었던 새 인류문명의 기록을 창조해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 국민이 만든 기적의 역사가 미래의 토양이 되어 우리 민족의 가치 자산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박물관의 전시공간은 '대한민국의 태동, 대한민국의 기초확립,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대한민국의 선진화 및 세계로의 도약' 등 4개의 대주제와 13개 중주제로 꾸며진다. 건립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김 위원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민주화만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산업화만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라며 경제, 교육, 언론, 종교, 민주화운동 등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역사 발전과정을 보여주겠다는 포부를 밝힌다.

2011년의 문을 여는 신년하례회에서는 언론인 출신으로 관계, 학계를 두루 거친 원로 지식인으로 존경받는 김진현 위원장을 초빙하여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건립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다시 한 번 새겨보고 이를 통한 우리 민족의 미래 비전을 제시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 동아일보 논설위원 | 과학기술처 장관 | 한국경제신문 회장 | 서울시립대 총장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공동대표 | 정준하기념사업회 회장, 명예회장 | 문화일보 사장, 회장 | 민세 안재홍선생 기념사업회 회장 |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자문위원장 | 포니재단 이사장 | 신간회기념사업회 회장 | 한국DMZ평화포럼 공동대표 |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상훈〉 대통령표창, 청조근정훈장, 국민훈장 무궁화장 외

〈저서〉 한국의 선택, 한국은 어떻게 가야 하는가, 일본친구들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 외

■ 경영강국 대한민국, 새로운 경영혁신 패러다임

제1676회 1월 13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최종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소통은 요즘의 사회적 핵심 단어이자 스마트폰, 페이스북, 트위터 등 정보화 시대를 반영한 IT의 핵심 단어이다. 이들 모두 '소통'이라는 시대의 화두 속에서 일상의 단일한 의사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대상과 형태, 방법으로 변화하고 있는 소통의 한 예이다.

이는 경영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300인 이상 기업에는 대부분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아직도 노사 간의 원활한 소통의 통로로 활용되기 보다는 노사분규나 갈등의 창구로만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적자본이 국가 경쟁력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는 그만큼 노사 갈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1998년 우리나라도 노사정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노동정책과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정책'에 대해 대화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합의를 도출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립하였다. IMF 당시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내어 경제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한 곳도 이곳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서울대 경영대학에서 노사관계의 구루(Guru)로 평가받으며, 노사정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최종태 위원장을 초빙하여 경영강국 대한민국이 되기 위한 새로운 경영혁신 패러다임과 노사상생을 위한 노사정위원회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들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오스트리아 린츠대 경영학 박사 |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경영대학장, 노사관계연구소장, 명예교수 | 영남대 석좌교수 | 한국노사관계학회 회장 | 한국경영학회 회장 | 서울시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상훈〉 옥조근정훈장, 황조근정훈장, 제10회 BMW학술상 최우수상 외

〈저서〉 서독의 사회복지와 노사관계, 현대임금관리론, 전략적 노사관계론, 현대인사관리론 외

■ 금융위기가 국가경제 지도자들에게 주는 교훈

제1677회 1월 20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Paul Danos 미국 다트머스대 비즈니스 전문스쿨
(Tuck School of Business at Dartmouth) 학장

미국 주택시장의 거품붕괴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로 초래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지난 80년 만에 맞이한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였다. 일정한 주기성을 보이는 거품 붕괴 현상에 대해서 은행 및 금융기관들은 더욱 취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정부는 새로운 규제 방안으로 위기에 대처하려고 한다.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수립할 때마다 비즈니스 윤리 및 경제 시스템의 근간에 대한 전반적인 논쟁이 있어왔다. 경제위기와 관련된 주요 기관들의 어떤 조직적 또는 시스템적인 결함이 위기를 초래했는가. 리더들의 어떤 자질들이 경제위기에서 보인 의사결정 실패의 원인이 되었으며, 어떻게 해당 자질들을 발견하고 예방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미국의 Tuck School of Business at Dartmouth의 학장으로 재직 중인 Paul Danos 학장을 초빙하여 글로벌 경제위기가 시사하는 리더십의 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Tuck MBA School은 미국 최초의 MBA 스쿨로 전 세계 우수 MBA 프로그램 순위에서도 늘 상위를 차지하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학교이다.

Paul Danos 학장은 Tuck School에서 14년간 최장수 학장으로 MBA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오고 있는 인물이다.



美 University of New Orleans 졸업 | 美 University of Texas Austin 박사 | 美 University of Michigan 부학장 | Paton Accounting Center 연구소장 | BJ's Wholesale Club 사외이사 | General Mills 사외이사 | The Association to Advance Collegiate Schools of Business International (AACSB) 재무담당이사 | LEAD Council of Deans 회장

■ 한러관계의 과거, 현재와 미래의 과제

제1678회 1월 27일(목)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콘스탄틴 브누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

2010년은 한러 수교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였다. 1992년 러시아와의 교역을 시작한 이래 대 러시아 수출은 41억 9000만 달러로 35.5배, 수입은 57억 9000만 달러로 77.4배나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브라질, 인도, 중국 등 다른 브릭스(BRICs) 국가와의 교역 증가 규모를 상회한다. 2005년까지 적자를 기록했던 대 러시아 무역수지도 러시아의 빠른 경제성장에 따라 2006년 흑자로 전환됐다.

러시아는 거대한 내수시장, 중산층 확대에 따른 구매력 증가, 풍부한 천연자원 등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세계적으로도 러시아를 두고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도 최근 현대자동차의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건설, 한러 합작 조선소, 연해주 내 여의도 면적의 33배 크기 영농단지 인수 등 우리 기업의 대규모 직접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정치외교가 친북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 한국 외교에도 큰 과제가 던져졌다. 향후 유라시아와 태평양의 관문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본원이 한러친선협회를 통해 러시아와 친화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가운데, 2009년 10월 주한 러시아 대사로 부임해 한국과 러시아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콘스탄틴 브누코프 대사를 초빙하여 한러 관계의 현재와 미래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 졸업(영어 및 중국어 전공) | 1973년 옛 소련 외교부 근무 시작 | 駐중국 소련대사관 근무 | 駐인도 소련 대사관 참사관 | 駐중국 러시아대사관 근무 | 駐홍콩, 마카오 총영사 | 러시아외무부 아주제1부국장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프로그램

매주 목요일 07:00~09:00

■ 창립 36주년 기념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제1679회 2월 10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크리스탈볼룸
김항식 국무총리

훌륭한 국정운영의 조건은 무엇일까? 전체의 역사를 관통하며, 시대에 맞는 필요한 역할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국민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남기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도 힘든 길인가? 그 길에는 수많은 갈등과 화해가 공존하며, 함께 걸어온 이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다. 우리나라가 G20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세계의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36년간의 청렴한 법관 경력과 감사원장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후반기 국정을 이끌어갈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김항식 총리는 취임하면서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 소통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이 바로 세워져서 그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사회가 움직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며, 자유롭게 경쟁하되 경쟁에서 뒤쳐진 사람들도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연구원 창립 36주년을 맞는 이번 기념포럼에서는 본원과 함께 '주식회사 장성군'의 기적을 만들어 낸故 김항식 장성군수의 동생이기도 한 김 총리의 국정철학과 인생철학을 들어본다. 더불어 최근 북한의 도발사태로 불확실한 세계질서 안에서 우리 사회가 소통하고 서로 중심을 잡아갈 수 있는 구심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핵심 리더들이 어떻게 뜻을 모으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지에 대해 한국을 대표하는 오피니언 리더들과 공감하는 시간을 갖는다.



서울대 법학과 졸업 | 독일 마르부르크필립스대 수학 | 제14회 사법고시 합격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 부장판사 |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기획조정실장, 차장 |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 대법원 선임재판연구원, 대법관 | 감사원 원장

■ 외국기업의 현지화와 감성 디지털 마케팅 전략

제1680회 2월 17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방일석 올림푸스한국(주) 사장

디지털 카메라 제품에 대한 인식조차 없던 국내에 새로운 카메라 문화를 만드는데 일조한 올림푸스한국이 2010년 설립 10주년을 맞았다. 5명의 직원이 400명이 되는 등 10년 동안 100배가량 성장했다.

방일석 대표는 설립단계부터 법인운영에 대한 전권행사와 발생수익을 모두 한국에서 재투자한다는 조건을 제시, 대부분의 외국계 회사들이 브랜드를 내세운 판매 전략에만 치중해 온데 반하여, 새로운 마케팅 전략으로 본사와 완전 독립된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특히 조직에서 무서운 것은 외부의 적이라 아니라 '내부의 적'이라고 보고 소통경영을 가장 중시하였다. 실제로 직원들과 밴드를 결성해 직접 갈고 닦은 드럼 실력을 과시하는 등 소통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감성과 추진력을 동시에 겸비한 CEO로서 인재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 구조 안에서 일당백의 직원, 작지만 강한 회사로 올림푸스한국을 이끌어가고 있다. 한편 또 다른 10년 후를 준비 중인 올림푸스는 카메라에서 의료기기 등 새로운 사업에서 더욱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글로벌 기업의 새로운 성공 모델을 보여 주고 있는 방일석 올림푸스한국 사장을 초빙하여 외국기업의 현지화 전략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감성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중앙대 전기공학과 졸업 | 연세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1988년 삼성전자 입사, 삼성전자 일본 주재원 | 2000년 올림푸스한국 설립 및 대표이사 | 올림푸스한국 자회사 비첸(MICHEN) 대표이사 | 올림푸스 영상시스템사업부 아시아헤드쿼터 총괄사장 | 올림푸스 China Investment 부회장 | 올림푸스이미징 차이나 회장

〈상훈〉무역의 날 은탑산업훈장, 한국의 CEO대상, 제12회 연세최고경영대상, 2007년 대한민국 글로벌경영인 대상, 2009 보프스 글로벌 CEO 外

■ 우리 역사 바로 알기

제1681회 2월 24일(목) 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
허성도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교수

중국의 자랑 만리장성은 그 위용이 실로 대단하다. 그러나 진시황의 명으로 만리장성을 쌓기 위해 수많은 백성들이 동원되어 죽었다. 이집트의 자랑인 피라미드도 왕이 즉위하면서부터 만들기 시작한 것으로 왕의 통치가 길수록 그 무덤이 크고 웅장하다. 베르사유의 궁전, 로마의 콜로세움과 교황청 등 그 화려함 뒤에는 수많은 노예와 백성들의 눈물과 희생이 있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국보 1호인 승례문은 한 나라의 자랑이라기에는 너무나 초라하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역대 왕들이 독재자가 아니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대신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기록들을 유산으로 남겨 주었다. 왕들 곁에는 항상 사관이 따라붙어 왕의 모든 행적을 기록했으며, 그 내용은 왕도 보지 못했다. 유네스코도 인정한 '조선왕조실록'이 바로 그것이다. 왕조차도 볼 수 없었던 기록이었기에 왕은 독재자로 군림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성군으로 남고자 노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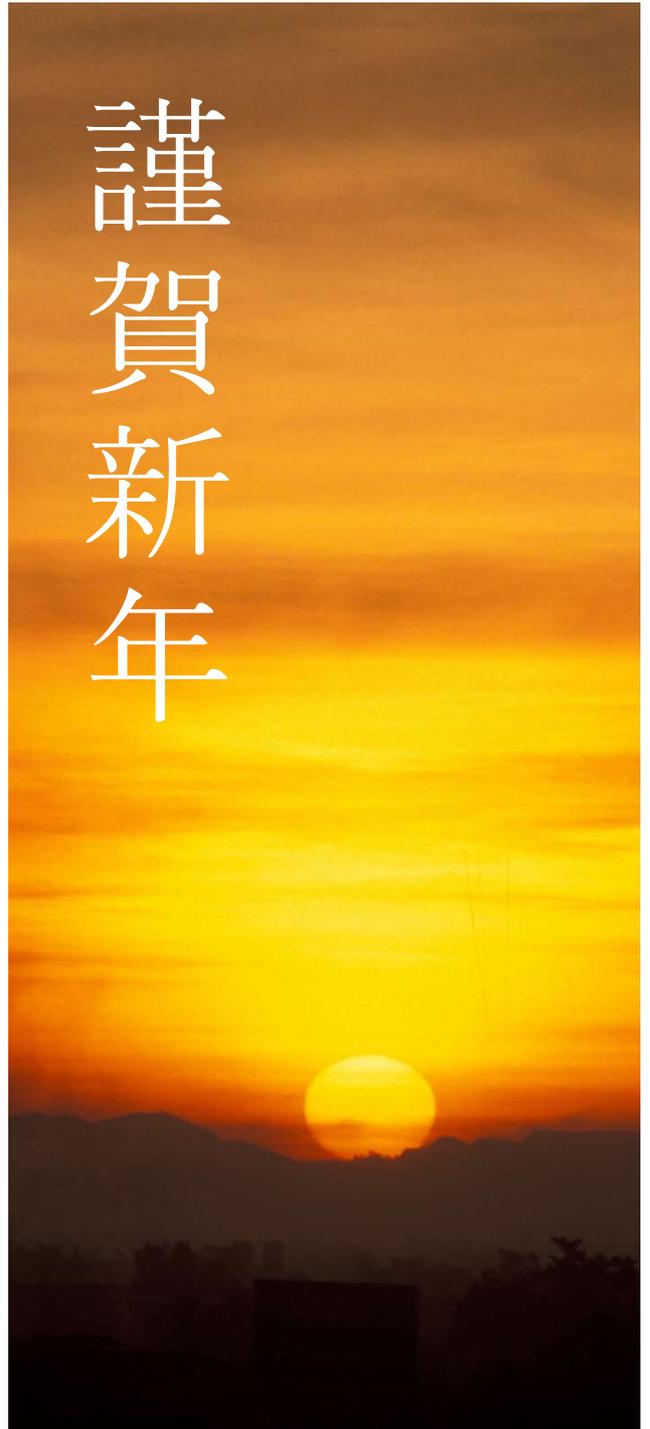
이러한 기록문화는 후손들이 조상들의 문화, 제도, 양식을 참고해 더 아름답고 강한 나라를 만들게 하기 위한 역사의식에서 출발했을 것이다. 하지만 기록이라는 유산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역사 연구의 미흡함을 알리고 기록에 숨겨진 놀라운 사실들을 연구하는데 매진하고 있는 허성도 서울대 교수를 초빙하여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졸업 | 서울대 중문학 석박사 | 충남대 중어중문학과 교수 | 한국중국어문학회 회장 | 한국중국어언어학회 회장 | 서울대 인문대학 부학장, 중앙도서관장, 인문정보연구소장, 중국어문학연구소장 | 한국사시료연구소 소장 | 중국 북경어언대학 해외 석좌교수

〈저서〉 現代 中國語 語法 研究, 생각-허성도교수의 고전명상, 中國語學概論, 中國語 作文과 語法, 중국어 입문, 현대중국어 어법의 이해 외

謹賀新年



제 1669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Human Development & CEO Forum

좋은사람이 좋은기업이다.



사단법인 인간개발연구원

경제

사진 · 정용달 팀장

세계 속의 한국

오늘은 세계 30여 개국의 정상들을 초청해 회의를 하는 날이다. 그 회의를 주재하는 주인공이 이명박 대통령이다. 우리로서는 올림픽에 버금가는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하다. 이렇게 나라의 위상이 높아진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후 우리는 다시 분단을 겪었다. 그 분단 하에서 6.25 전쟁을 겪어야 했고, 그 이후에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

그 모든 어려움 중에서도 국민들의 배고픔과 가난은 견딜 수 없는 큰 고통이었다. 1960~70년대에는 내일의 먹을거리를 걱정해야 하는 가난이 있었다. 또, 독재정권이 들어서면서 국민의 뜻에 의해서가 아닌 권력자의 뜻에 따라서 나라가 움직이는 시대를 겪었다. 그런 것이 불과 몇 십년 전이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산업화를 일으켜 가난을 해결했고, 민주화를 통해 민주주의를 정착시켰다.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는 120여 개국인데, 단시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시킨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독립한 지 60년 만에 세계 정상들을 초청하는 나라도 우리가 유일하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시키고, 오늘날 세계 12~15위 국력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소득 2만 달러에 머무른 지가 10년이 되어 간다. 이로 인해 나라 안팎에 여러 가지 갈등과 혼란이 증폭되는 국면에 처해 있다. 이를 해결하는 것이 오늘의 과제이고, 이를 해결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인다. 또한 이를 해결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남은 임기 과제이자 후반기 국정철학이라 할 수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유산을 청산하는 것이 우선

먼저 무엇이 문제인지 원인을 진단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오늘날까지 달려온 것은 세계적으로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다른 나라가 경험하지 못했던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은 수많은 땀방울을 흘렸다. 그러나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는 부패라는 유산을 물려받았다.

당시 부패는 당연시되던 문화였다. 박봉에 시달리던 공무원들은 부모 봉양하고 자식 교육을 위해 생계형 부패를 저질렀다. 길거리에서 교통 순경이 신호위반 단속을 하다가도 운전자가 슬며시 지폐 한 장이라도 내밀면 놓아주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하다못해 동사무소 직원에게 민원을 넣으면서 담뱃값이라도 쥐어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이런 부패 문화는 지금까지도 청산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산업화를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가는데 발목을 잡는다. 산업화가 남겨놓은 부패를 청산하지 못한 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대한민국이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독재권력이 장기화 되면서 민주화 투쟁도 치열했다. 독재가 장기화 되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사라지고 전제주의나 사회주의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당시 반독재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한 민주주의 운동이었다. 나 또한 그런 의미에서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

그 과정에서 민주화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나마 5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하고 4년마다 국회의원, 시장, 구청장 선거를 하게 된 것이다. 소위 민의에 의해서 민주주의의 지도력을 창출하고 있다. 민주

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산업화를 뒷받침하는, 한쪽에서는 산업 활동으로 가난을 해결하고 한쪽에서는 민주화를 통해 나라의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가 청산하지 못한 유산은 정부나 권력에 대한 불신이다. 정부가 하는 말, 권력층에서 하는 말은 무조건 믿으려 하지 않는다. 정부가 발표하는 것은 무조건 믿지 않으려던 시절이 있었다. 농정 당국이 고추를 심으라고 해서 심으면 가을에 고추 값이 폭락하고, 배추를 심으라고 해서 심어놓으면 배추 값이 폭락했다. 또 농산물 가격보다 비료, 농약, 농기계 가격이 더 빠르게 상승하니까 정부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데모를 했다 하면 아주 과격하게 나온다. 과거에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이었고, 지금은 나라의 민주주의라기보다 개인과 단체의 이익을 우선한다. 그러다 보니 대화보다는 투쟁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독재시절에도 대화보다 투쟁이 앞설 때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정당할 때가 있었다. 일제시대 독립운동이 정당화 됐듯이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민주정부가 들어선 지 20년이 넘었다. 그런데도 모든 것을 투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남아있다. 이 모든 게 권력과 정부에 대한 불신에서 나오는 일들이다.

단적인 예가 천안함 사건이다. 북한이 어뢰로 공격하여 우리의 젊은 병사 46명이 목숨을 잃었다. 천안공노할 사건이 북한에 의해서 저질러졌



는데도 믿지를 않는다. 정부발표를 어떻게 믿느냐고 불신하고 있다. 이 건 불신의 극치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를 않는다. 지난날 민주화 과정에서 정부와 권력에 대한 불신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권력에 대한 불신이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청산하지 못한 유산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부패와 청렴은 국가경쟁력의 근본

산업화를 거치면서 우리에게 남겨진 부패, 민주화를 거치면서 남아있는 정부와 권력에 대한 불신이 선진국으로 넘어가는데 발목을 잡고 있다. 이것이 청산되지 않고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예가 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조사한 국가별 반부패청렴지수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178개 국가 중 39위를 기록했다. 작년과 동일한 순위로 10점 만점에 5.4점을 받았고, 작년에는 5.5점을 받았다. 청렴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뉴질랜드로 9.3점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1위부터 20위를 차지한 국가 대부분은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라는 점이다. 반면 130위 이하의 국가들은 5천 달러 이하였고, 150위 이하 국가들은 3천 달러 미만이었다.

이것은 부패와 청렴이 단순한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그 나라의 국가경쟁력임을 말해 준다. 실제로 청렴하지 않은 나라 중에서 3만 달러 이상 되는 나라가 없고, 청렴한 나라 중에서 선진국이 되지 못한 나라가 없다.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부패의 유산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으로 정치권과 공직사회를 꼽는다. 지난날 우리는 권력이 기업과 유착을 했다. 기업이 1억 원에 공사를 수주하면 3천만 원은 공무원에게 뇌물로 들어가고, 3천만 원은 원도급자가 가져간다. 그리고 나머지 4천만 원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1990년대 중반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삼풍백화점 참사와 성

수대교 붕괴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권력과 기업의 유착으로 양산된 부패가 결국에는 국민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온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정치권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부패를 청산하는데 가장 앞장서야 할 곳은 대한민국의 정치권이다. 나도 정치인이기에 마치 자가당착 같지만 오늘날 정치권의 진단을 정확히 해야 한다. 정치권이 깨끗해지면 기업이 손 벌릴 곳이 없다. 정치권과 공직사회가 더 투명해지고 더 깨끗해져서 부패와 불신의 늪에서 벗어나야 선진국이 되고, 소득 3만 달러로 올라가야 갈등이 줄어든다.

우리말에 '쌀독에 인심난다'라는 말이 있다. 자기 쌀독에 쌀이 차 있어야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말이다. 나라 전체의 경제가 커지면 모두가 다 넉넉하고 여유 있게 살게 되고, 그럼 갈등이 생길 이유가 없다. 삶이 각박하니까 갈등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는 것이다. 우리가 3~4만 달러 시대에 들어서야 사회 전체가 좀 넉넉해지고,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야 우리도 선진국 국민이라는 자존심이 생길 것이다.

현 정부가 말하는 '공정한 사회'라는 것도 바로 그 기준을 말한다. 공정한 사회가 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다. 불신과 갈등만 커질 뿐이다.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이 공정한 사회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정과 부패를 청산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힘있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것이 후반기 이 정부가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철도와 도시를 수출하는 꿈의 비전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1인당 70달러 미만이었다. 그것을 극복하고 1980년대 들어서 국민소득이 약 3300달러가 되었다. 당시 국가자산이 19조 원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이고, 국가자산이 255조 원이다. 1년 예산은 300조 원을 넘었

다. 나라도 커지고 내외형 모두 커졌다.

그런데 우리는 3천 달러 시대나 2만 달러 시대나 똑같은 옷을 입고 있다. 이제는 정치도 일대 결단을 통해서 나라의 틀을 새롭게 다듬고, 옛 날에 만들어졌던 옷을 버리고 지금 시대에 맞는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새 옷을 입으려면 먼저 목욕을 해야 한다. 목욕을 하지 않고 새 옷을 입으면 뭔가 찻찻한 기분이 든다. 목욕도 하지 않고 새 옷을 입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20년, 30년 후에 맞게끔 나라의 틀도 정비하고, 지난날 산업화, 민주화 시대의 유산도 정리해야 한다.

그럼 이것이 전부일까? 이것으로 우리나라 30년, 50년, 100년의 미래가 보장될까? 우리나라 식량자급률 중 곡물자급률은 25%도 되지 않는다. 지금 아파트를 지어도 분양이 안 된다고 하는데, 향후 10년만 지나면 아파트를 지을 땅조차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에 석유가 나오는 것도 아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다른 나라 역시 발달하고 있는 분야다. IT분야도 인도가 우리를 앞서고 있다. 똑같은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50년, 100년 후에 국제사회에서 살아남는 길,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뽐낼 길은 무엇일까? 두 가지 길이 있다. 철도와 도시를 수출하는 것이다. 철도 수출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노선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노선은 부산-서울-평양-나진-청진-시베리아-모스크바-베를린-파리-런던을 경유하는 노선이다. 두 번째 노선은 부산-서울-평양-신의주-베이징-중앙아시아-이스탄불-마드리드를 경유하는 노선이다. 세 번째 노선은 부산-서울-평양-신의주-상해-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인도-이집트-모로코를 경유하는 노선이다.

이 세 개 노선 위로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인정받은 시속 300km의 KTX가 달리게 만드는 것이다. 이들 노선에는 40여 개국 66개의 도시가 있다. 이 도시에 우리의 일산, 분당, 판교신도시와 같은 한국형 도시를 수출해야 한다. 우리나라 건축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인구 15~20만 명의 신도시를 세우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도시를 건설하면 그 나라에 진출해있는 재외동포와 교민들로 하여금 이곳에 와서 모여 살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그 도시는 바로 우리의 문화적 영토가 되고, 우리의 경제적 영토가 될 것이다.

21세기의 영토라는 것은 지리적으로 통치권이 미치는 곳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 경제가 지배하는 곳이 바로 우리의 문화적 영토, 경제적 영토가 된다. 중국 청도는 중국 땅이지만 한국인들이 엄청 많다. 그곳은 이미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 영토가 되었다. 미국 LA에 가면 자바시장이라고 있는데, 그곳 수만 개 가게의 사장이 모두 한국인들이다. 그

곳은 한국말, 한국문화가 통하는 곳이다. 이미 한국의 경제적·문화적 영토가 된 것이다. 이렇게 유라시아 대륙 40여 개국, 66개 도시에 철도와 도시를 수출했을 경우 50년, 100년 후에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깨끗한 사회가 대한민국의 미래 담보

이것이 대한민국 미래의 꿈이다. 이미 세계는 땅 파고 산 뚫어서 고속도로를 내는 시대는 지났다. 강대국들은 지금 철도시대로 회귀하고 있다. 중국만 해도 250조 원을 들여서 21개의 성을 고속철도로 연결하고 있다. 러시아와 미국도 마찬가지다. 때마침 우리에게 세계적 수준의 KTX 기술이 있다.

다가오는 철도경쟁시대에 한국의 KTX를 선택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외국에서 뭘 보고 한국의 철도를 수주하고, 자국의 신도시 건설을 대한민국에 맡길까? 그것은 대한민국이 가장 청렴한 나라, 깨끗한 나라라는 인식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기술이 좋고 부패가 없는 나라에 큰 사업을 맡겨야 한다는 것은 어떤 나라의 지도자든지 생각할 것이다. 기술력이 담보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것은 부패가 없는 깨끗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길 뿐이다. 이것이 미래에 대한 보증수표가 되어야만 우리가 반도를 조상들에게 물려받았듯이 50년, 100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들로부터 위대한 대한민국을 물려받았다는 소리를 듣게 할 수 있다. 다행히 유라시아 대륙의 40여 개국 중에 우리가 가장 잘 사는 나라에 속하고, 우리의 GDP가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 바로 이때에 우리가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미래에 대한 꿈을 담보하는 바탕이 될 수 있다. 사회지도력을 가진 사람, 정치권은 물론 공식사회가 먼저 부패와 불신을 떨쳐내는데 앞장서야 한다. 그것이 이 시대의 과제이고, 이 정부의 과제이고, 우리들의 미래이다. **김기현**



Issue & Seminar 2

남주홍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12월 2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인간개발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이 함께하는
이것이 개발경역자여그리

사진 정용달 팀장

한반도 안보위기 - 연평도 사태의 의미

오늘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리겠다. 공포증에서 벗어나고 안보불감증을 해소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우리에게 북한이라는 존재의 의미

우리는 우리의 상대를 정확히 알고 있는가? 대한민국이 누구와 회담을 하고 협상하고 거래하고, 누구에게 진의와 선의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먼저 물어야 한다.

첫 번째 메시지는 객관적 사실에 충실하고 있는가이다. 북한은 병영국가이다. 국가나 회사의 경영전략에 있어서 비법은 상식에 있다. 절대 술수와 묘수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객관적 사실을 직시할 수 있는 신념과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은 남미회담, 북미회담, 북중회담, 금강산관광, 개성관광, 이산가족 상봉 등 모든 국가의 결정을 군인들이 한다. 위기관리 시스템도 군인들이 관리하고 외부와의 모든 대화를 군이 조종한다.

두 번째 메시지는 국가의 지도이념이 선군사상이라는 점이다. 군이 국가의 수단이고 목적이다. “우리는 군대만 굶지 않으면 안 망한다”는 말은 김정일이 입만 열면 하던 소리이다.

세 번째 메시지는 병영국가는 군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체제라는 점이다. 북한은 군이 동의하면 일순간에 움직이는 상속체제이다. 지도자가 누구든 군이 위기관리를 전담하고 국가경영의 목적과 수단을 겸하고, 대를 이어 충성하는 지휘명령 통신지휘체계는 대남정책의 일관성에 있어서는 최고의 장점이 된다. 쿠데타가 없고 외부의 바람에 시스템이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여기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북한의 취약점은 우발 및 돌발사태를 관리하는 위기관리 능력이 점차 한계점에 이르고 있고, 이후의 사태수습에 대해 통제력을 잃고 있으며, 앞날의 전망에 대해 일부 엘리트 그룹은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

북한의 약점은 첫째, 내적 상황이 최악이다. 둘째, 남조선이 요지부동이다. 셋째, 국제환경이 엄청나게 불리하다. 전쟁은 삼위일체가 되어야 한다. 즉, 조선인민군의 사기가 충천하고, 위기 시 군수보급 병참에 자신이 있고, 전후방에 총력동원체제가 일사분란하게 일어날 때 전쟁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250여 개의 전쟁 징후 목록에 모두 잡힌다. 전쟁이라는 것은 아무리 바보들이라도 기습 성공률이 70%가 넘어

갈 때 하는 것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언행을 남한과 미국이 매일 지켜 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천안함이든 연평도 포격이든 북한은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위협을 감수할 정도로 민·군·관과 사회 전후방 그리고 국제환경이 유리하지 않다. 김정일이 하라고 지시를 해도 불가능하다. 절대 공포증에 빠지지 말고 담대해지자.

내부 단속 위한 남한 위협 계속돼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위기관리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에는 흐름이 있다. 예를 들어 김정일이 1974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도끼만행사건이 일어났다. 조선노동당 6차 전당대회가 있던 1983년 미안마에서는 랭군폭탄테러가 일어났다.

조선인민군 내부에도 알력이 있다. 함경도와 평안도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다. 중국이 가까운 곳과 러시아와 가까운 곳으로 나뉘어 그들은 같은 공산당이라도 서로 총을 겨눌 듯 무섭게 논쟁한다. 그러나 결정이 나면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작은 일만 생겨도 군 책임자가 옷을 벗는다. 오죽하면 국방부 인사는 김정일이 한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까. 안보분야는 흐름과 일관성을 가지고 정책의 프레임에 봐야 한다. 북한은 내부의 알력이 있을 때 출구전략을 남한에서 찾는다. 1968년 청와대 습격사건, 삼척 공비침투 등도 같은 경우다. 이런 일들은 1987년 KAL기 폭파사건까지 이어진다.

2008년 김정일이 아플 때 관련부처에서 ‘지금부터 북한의 의사결정 과정이 불안해진다. 충동적 도발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우발’이란 대한민국 군과 안보기관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에 포함되고,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돌발’은 황당한 사건이다. 천안함 사태가 그렇다. 연평해전은 우발이지만 주민들을 무차별 폭격한 연평도 포격은 돌발이다.

김정일이 아프면 군인들의 사기가 떨어진다. 군이 동요하면 남한을 건드린다. 위기관리 부재 상태에서 소통 채널도 없고, 가동 여건이 안 되



면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그렇게 되면 위협 행위는 반복된다.

남한이나 북한 모두 포격훈련을 할 것이고, 양측 모두 오발탄을 쏠 수 있다. 이 때 사격중지는 누가 먼저 할까? 북한이 먼저 할 것이다. 남한에 치명타를 입힐 수는 있겠지만 한미연합군의 응정보복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먼저 컨트롤 하는 것이다. 내년 한 해는 우리 스스로 깨어 있어야 하고 조심해야 한다. 오랫동안 전략정보 분야에서 일해 온 사람으로서의 상식수준으로 전쟁은 아니지만 위기의 사이클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지속적 위기상황에 대비체계 갖춰야

안보전선에는 세 가지가 있다. 눈에 보이는 전선인 휴전선, 눈에 보이지 않는 대공전선, 그리고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국민 홍보전선이다. 천안함 사태처럼 국민의 30%가 믿지 않는다는 것은 비극이고 가슴 아픈 일이다.

휴전선을 보면 전쟁 순위목록상의 특이동향은 없다. 그러나 위기상황은 지속될 것이기에 항상 비상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돌발 시나리오는 예측할 수 없다. 북한은 둘 중 하나의 선택을 할 것이다. 남한을 건드려서 쌀과 비료, 현금을 받아 내거나 중국이 눈감고 대량으로 도와주는 것이다. 그것도 아니면 우는 아이 젖 주듯이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고를 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첫째, 국가공조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 중국과의 무역거래량이 연간 1700억 달러에 이른다. 제주도는 중국관광객이 점령했다는 표현까지 쓴다. 지경학적으로 중국과 호형호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는가? 중국을 적대시하지도 말되 너무 신뢰하지도 않는 상

태에서 전략정보와 '판시(관계)'를 해줘야 한다.

둘째, 국제공조뿐만 아니라 한미연합공조에 대한 자성이 필요하다. 우리가 북한을 순수한 선의로 설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핵은 선의로 풀 수 없기 때문에 핵문제는 물 건너갔다. 다음 카드로 김정일 부자가 3차 핵실험까지 갈 것이고 미사일도 몇 번 날아올 것이다. 선군의 위업을 내놓을 한 방은 핵실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분위기도 지금보다 경직될 것이고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 때 우리의 한미연합작전 체제는 어떻게 될까? 주한미군에게 방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억제력을 경제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고인이 된 재향군인회의 박세직 회장과 함께 미국을 비롯해서 국제적으로 '대북방어력이 문제가 아니라 전쟁 억제력이 문제'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셋째, 조기경보체제에 대한 자각이다. 안보는 홍보고, 홍보는 정보다. 상대를 알리고 하는 것이 정보이고, 국민들에 대해 알리는 것이 홍보이다. 안보가 정보라는 이야기는 팩트를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국민이 몰라주면 끝이다. 1992년 초 김일성이 죽기 전에 유언을 반복했다. '내부사정이 긴박할수록 남조선에 대해서만은 주체조선의 명분을 잃지 마라'라고 했다. 기 꺾이지 말고 얻어먹더라도 큰소리치면서 얻어먹으라는 이야기다. 얻어가는 북한은 내놓으라고 하고 우리는 얼마나 줄지를 물어본다. 이는 잘못된 것이다.

현대그룹에서 금강산 사업을 한다고 찾아왔을 때 대한민국 상거래에 있어 말이 안 되는 거래라고 얘기해줬다. 손익분기점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번에 큰돈을 가져다주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그 돈은 조선인민군이 관리하기 때문에 분명 핵실험으로 이어질 것이다. 핵실험 때 북한

지휘부가 인도, 파키스탄처럼 핵무장을 인정받고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활동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이것이 2012년 강성대국건설론이고, 이 때 김정은을 등장시키려고 했으나 못하고, 지금 김정일이 아프니까 불안해서 세습을 진행한 것이다.

이번 기회에 자성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핵개발이 아닌 핵우산을 써야 한다. 핵우산이란 대한민국 안에 연합사령부가 존재하는 것 그 자체이다. 북한 지도부가 천안문사태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루마니아와 독일의 마지막도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김일성은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핵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썼다.

15년 전 1차 핵위기를 잊으면 안 된다. 인도, 파키스탄은 핵무장을 용인받고 미국과 원자력협정까지 맺었다. 6자회담의 성공가능성을 꿈꾸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김정은이 선군의 위용을 떨치려면 사고를 칠 수밖에 없다. 북한의 포병 출신들이 조선인민군을 장악하고 있다. 군인이 정치화 되면 세력화 정도가 아니라 집권화가 되기 때문에 한계에 이르고 사고가 터지게 된다.

북한사회, 격변을 넘어 급변으로 가고 있어

북한 정권에 격변의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격변이란 예측불허성이 클 때 갑자기 극에서 극으로 간다. 북한의 육군 소장 김영철이 남한과의 회의에서 돈 필요없다고 당장 북한땅을 떠나라고 하다가 돌아서면 금세 임금을 올려달라고 주장한다. 연평도에 포격을 한 뒤 어제는 말단 소위가 우리와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조선인민군의 메시지로 평화를 주장한다. 한미연합훈련이 끝난 시점에 평화 공세를 보낸 것이다. 격변이란 북한 체제의 운용방식이나 대남정책과 전략에 있어서 업 앤 다운이 심해지는 것이다. 격변이 일어나면 내부의 위기관리 의사결정이 경직된다. 내부에서 치고받는 일이 생기고, 고위직들의 망명도 늘어난다. 급변이란 격변이 장기화 되면서 패턴화 되고 당과 정부가 따로따로 놀면서 제2의 황장엽이 나오는 것이다. 그 터닝 포인트가 2012년이라고 본다.

위기와 전쟁이 구분되는 것은 위협과 위협의 차이이다. 긴장할수록 큰소리치는 것이 위협이다. 양쪽의 접촉사고를 북한이 먼저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 연합작전 체제로 가야 한다. 우리도 급해지면 올라갈 수 있지만 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것이 연합작전의 이유이다. 우리가 절차에 따라 스스로 절제를 해야 통제가 된다. 아무나 판단하려고 하면 실수를 한다. 정치적 판단은 금물이다.

위기관리는 과거의 경험, 학습을 읽을 줄 아는가,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가, 미래의 비전을 꿰뚫을 용기가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기관리의 요체는 자원관리, 사람관리, 시간관리이다. 위기는 사람이 관리하는 것이다. 위기관리의 키워드는 시간관리이다. 시간

이 누구 편이고 역사의 흐름이 누구편인지 알아야 한다. 말로만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지난날의 경험과 학습을 통해 통찰력, 현재 상황을 직시할 수 있는 용기,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꿈이 맞아야 한다.

북한은 이대로라면 급변으로 간다. 격변에서 급변으로 가는 과정이 위기인데, 우리는 이에 대한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 우리나라의 국론분열은 심각하다. 내 고향인 순천에서 강연을 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햇볕정책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했다. 잘못된 정보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다. 시간은 우리 편이나 우리가 시간관리에 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가는 의문이다.

국제환경은 절대적으로 북한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것이다. 중국이 아직 속내를 보이지 않지만 직접 만나봤더니 속으로는 굉장히 섭섭해 하고 있었다. 한국은 적인데도 늘 공짜로 주는데 중국은 동맹국이지만 늘 담보를 잡는다면 미국을 욕하는 것과 비슷하게 중국을 욕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독일에서 배우는 통일의 지혜

결론을 말하면 통일은 된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는 독일 통일에서 세 가지를 배워야 한다. 첫째, 동서독 간 교류협력이 많을수록 간첩 공작이 기승을 부렸다. 우리도 지난 10년간 두 번의 정상회담과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교류가 활발해졌지만 대남공작은 3배로 늘어났다.

우리의 국정원은 안보기관이지 햇볕정책의 홍보기관이 아니다. 통일부는 상대를 동족으로 봐야 하지만 국방부와 국정원은 적으로 봐야 경계가 가능하다. 업무 밸런스가 맞아야 위기관리가 되는 것이다. 남북관계는 특수관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휴전체제인 NLL을 건드리는 데 평화체제를 유지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강경파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비스마르크는 '현실을 직시할 용기가 없는 자는 미래를 논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는 독일 통일을 국민들에게 눈물로 호소하는 게 아니라 철과 피와 힘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강경파가 아니라 철저한 현실주의자이다.

둘째, '통일은 되지만 공짜는 없다. 엄청난 비용이 든다' 위대한 마르크화를 지니고 있던 독일의 이야기이다. 셋째, 통일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빈소에 수양딸을 비롯한 탈북자들이 날 붙잡고 울었다. 남한사회에서 완전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을 이해한다. 노숙자가 수도무하고, 다시 이중간첩이 되거나 국제적 난민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작은 통일도 못하면서 입만 열면 통일을 외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교만을 깨고 집안에서부터 통일을 해야 한다. **김기현**



CEO 미디어 스피치 2기 수료

앞서가는 CEO들의 스페셜 스피치전략

역사적인 인물 중 가장 스피치를 잘 하는 사람을 꼽으라면 히틀러와 예수를 꼽는다. 너무나 대조적인 삶을 살았지만 둘 다 뛰어난 스피치의 달인이었다. 하지만 히틀러는 자신의 야욕을 위한 스피치를, 예수는 상대방을 진심으로 위한 스피치를 했다. 이로 인해 이들의 삶의 양상과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졌다.

이번 2기 CEO 미디어 스피치 과정에는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대한노인회 15대 중앙회장으로 당선돼 노인의 사회적 역할 향상과 노인정책 선도에 힘쓰고 있는 이심 회장, 업계 최고 해외 수주고를 올리고 있으며 1년의 절반을 해외에서 활동하는 전영수 동명기술공단 회장, 회사를 대표하여 스피치 할 기회가 많은 임화섭 가온미디어 대표, 박물관 및 각종 기념관 등 전시사업의 전문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안용식 유디아이(주) 회장 등 총 12명의 CEO가 참가했다.

이번 2기에서도 성연미 봄온커뮤니케이션 대표가 '미디어 스피치의 이해'를 주제로, 김현주 한국방송학회 회장이 '공식석상의 위기대처와 시사스피치'를 주제로 수업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과정에는 사랑방송계로 잘 알려진 원종배 전 KBS 아나운서로부터 '효과적인 음성표현과 CEO의 교양스피치', 한경TV MC로 활약 중인 개그맨 권영찬으로부터 '기업과 경영의 윤희유, 유머 스피치에 대해 코칭 받는 시간을 가졌다. 2기 역시 매회 실습 위주의 교육과 피드백을 통해 높은 만족도와 교육효과를 볼 수 있었다. 한편 이심 회장은 2기생들이 지각이나 결석 없이 매회 교육과정과 뒤떨어지 않도록 독려해 교육 분위기를 이끌었다.

원종배 아나운서는 말(Speech)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두 가지 화두를 던졌다. 말은 무엇인가? 왜 말을 잘 하고 싶어 하는가? 이에 대한 답은 말은 소통이며, 말을 잘 한다는 것은 사회에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말은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주며, 설득력도 가지게 된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누군가를 설득할 때에는 이토스(Ethos, 인격적 측면), 파토스(Pathos, 감성적 측면), 로고스(logos, 논리적 측면),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했다.

2기 과정 수료자들도 공인으로서 훌륭한 언어습관을 갖기 위해 격월 정기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2기 운영진으로 회장은 임종렬 인물수채화 화가가, 총무는 김성오 미고의원 원장이 내정됐다. 바쁜 일정 가운데 2기 과정을 수료한 수료자 모두에게 2011년에는 '의사소통, 운수대통, 만사형통'하시길 기원 드리며, CEO들에게 2011년 CEO 미디어 스피치 과정을 소개한다.



1. 전영수 회장이 2기 수료증을 받고 있다. 2. 이심 회장은 100% 출석으로 개근상을 받았다. 3. 오복녀 사무총장이 수료증을 받고 있다. 4. CEO 미디어 스피치 2기가 11월 29일 수료식을 가졌다.

2011 CEO 미디어 스피치 과정

■ 일 시:

기수	일정	시간
3기	1월 24일 ~ 2월 21일	매주 월요일 □ 오후 3시-6시 □ 오후 7시-10시
4기	3월 14일 ~ 4월 11일	
5기	5월 2일 ~ 5월 30일	
6기	6월 13일 ~ 7월 11일	
7기	8월 22일 ~ 9월 26일	
8기	10월 17일 ~ 11월 21일	

■ 장 소: 봄온커뮤니케이션

(서울시 마포구 노고산동 40-1 적암빌딩 6층)
※ 주차는 가까운 창천공용주차장을 이용가능

■ 대 상: 12명(기업의 CEO 및 임원, 그리고 전문직업인)

■ 특 징: 최고 리더를 위한 1:1 맞춤 스피치 교육

시각언어, 음성언어, 미디어 언어를 통합한 멀티스피치의 영상 실습
매 강의 시 동영상 녹화 실습과 모니터링을 통한 피드백
최고 지도자의 전략적 스피치 구현
(방송인터뷰 출연, 미디어 위기 대처 Speech)

■ 교육비: 인간개발연구원 회원 170만 원 / 예비회원 200만 원

※ 부가세 없음

■ 진행순서: ① 주제강연 ② 방송실습녹화

③ 녹화영상 모니터링 및 피드백

■ 교육커리큘럼

일정	내용
1회차	Step 1. 미디어 스피치의 이해 1부 - 미디어 스피치의 이론과 실습(1시간) 2부 - '자금은 미디어 스피치의 시대' 녹화 모니터링(2시간)
2회차	Step 2. 효과적인 음성표현과 CEO의 교양 스피치 1부 - 음성표현 이론, 교양 스피치 이론과 실습(1시간) 2부 - 'CEO의 삶과 경영' 녹화 및 모니터링(2시간)
3회차	Step 3. 기업과 경영의 윤희유, 유머스피치 1부 - 유머스피치, 이론과 실습(1시간) 2부 - '유머로 경영하라' 녹화 모니터링(2시간)
4회차	Step 4. 공식석상의 위기대처와 시사스피치 1부 - 미디어 위기대처 및 시사스피치(1시간) 2부 - 'CEO 시사토론' 녹화 모니터링(2시간)
5회차	Step 5. 가족과 직원에게 전하는 감동과 설득 스피치 1부 - 상대를 움직이는 감동과 설득이론(1시간) 2부 - '사랑하는 직원과 가족에게 전하는 영상메시지' 녹화 모니터링(2시간)

※ 방송일정에 따라 강사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 인간개발연구원 민선아 과정(Tel. 02-445-1948)

봄온커뮤니케이션 institute 강창진 강사(Tel.02-706-5144)

잠자는 조직을 깨우는 박재갑 원장의 개혁스토리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의 만형 역할을 자임하다



사진 오경근 원장

박재갑 원장

1948년 생으로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의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성균관대 유학대학원 석사 과정 중에 있다. 1985년부터 3년간 미국 국립암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했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암연구소 및 암 연구센터 소장을 지냈다. 국립암센터 개원준비 본부장을 거쳐 2000년부터 2006년까지 국립암센터 초대 및 2대 원장을 지냈다. 대한대장항문학회 회장 및 이사장, 대한암학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세계대학대장외과학회 회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2010년 4월 국립중앙의료원 초대원장 및 이사장에 취임해 의료원 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1958년 6.25전쟁으로 인한 전상병과 의료요원의 훈련과 양성을 위해 개원한 국립중앙의료원. 당시 우수한 의료진과 첨단 기술로 서울의 대표적인 종합병원으로 주목받던 곳이다. 그러나 50여 년이 지난 최근까지 의료원은 막대한 투자유치를 앞세운 민간병원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끝없는 추락과 심각한 재정난을 겪었다. 3차 진료기관에서 2차 진료기관으로 강등되는 아픔도 맛봤다.

그런데 2010년 4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의료원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10년 전 국립암센터 초대원장으로 3년 만에 재정자립을 이끌었던 임박사 박재갑 원장이 초대원장에 취임하면서부터 '잠자는 죽은 조직'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국립중앙의료원 회생작업의 구원투수로 나선 박 원장은 그간의 경영혁신 능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낙후된 의료원의 근본적인 원인을 꿰뚫어 보고, 그에 기반을 둔 138개의 개혁과제를 선정했다. 투명경영을 모토로 한 개혁과제는 현재진행형이다. 담장 허물기, 화장실 개보수와 같은 기초적인 변화에는 기본에서 시작하자는 박 원장의 깊은 뜻이 담겨있다. 특히 병원 곳곳에서 수시로 열리는 각종 강좌는 시스템의 변화와 함께 개혁을 주도할 '사람'의 변화를 이끄는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 박 원장은 서울대 교수직을 겸하고 있다. 겸직 신분을 활용해 서울대병원의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기 위함이다. 대장암 분야의 권위자로서 여전히 일주일에 네 차례 이상 대장암 수술을 집도하고 있는 그는 3년 안에 적자를 벗어나 과거 국가대표 병원의 위상을 재정립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특수법인 전환과 함께 취임한 박재갑 원장을 만나 그간의 개혁과정과 국립중앙의료원의 미래비전을 들어봤다.

대담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국립의료원에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병원명이 바뀌었습니다.

5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병원의 수장으로 오셨는데요.

박재갑 원장 : 국립중앙의료원이라는 이름은 1958년 한국 정부와 국제연합 한국재건단,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3국이 공동사업으로 문을 열 때 붙였던 이름입니다. 당시는 서양의 최신 의료기기를 갖춘 대표적인 종합병원으로 주목받던 곳입니다. 그러다 우리 정부가 10년 뒤인 1968년 의료원을 인수하면서 국립의료원으로 이름을 바꿔 불렀죠. 그러나 정부가 운영을 맡으면서 재정이 악화되기 시작했고, 결국 지난 4월, 의료원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담아 특수법인으로 재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저에게 초대원장 겸 이사회 의장을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4개 부처의 차관을 당연직 이사로 거느리는 국내에서 의사 지위로는 가장 높은 자리인 셈이죠. 국가 병원의 수장으로 사명감이 따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특수법인화가 됐다고는 하지만 낙후된 병원 이미지가 여전히 강합니다.

박재갑 원장 : 의료원이 낙후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라는 게 100% 공영, 민영을 나누기가 힘들어요. 민영의료기관도 상당한 공공성을 띄고 있죠. 또 하나 중요한 게 3차 진료기관입니다. 의료원도 3차 종합병원이었지만 몇 해 전 2차로 강등되었습니다. 경

영실적도 좋지 못했지만 우수인력들이 더 좋은 조건을 찾아 계속 떠났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내 3차 종합병원은 100% 대학병원에 특수법인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3차 종합병원은 없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병원시스템은ダイ내믹하게 움직여야 하고, 순발력 있는 결정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해야 하는데 공무원 체계로는 이 시스템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의료원만 그 흐름에서 벗어나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직원들이 특수법인화에 따른 신분변화가 두려워 반대한 탓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변화가 늦어졌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경쟁력을 잃게 된 겁니다.



특히 막대한 투자를 받는 민간 병원들이 생기면서 경쟁력이 점차 약해지고 적자가 늘어나자 정부로서도 부담이 되니까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투자를 받을만한 수용태세도 되지 않았던 게 의료원의 현실이었습니다. 전국 대학병원들이 특수법인화를 꾀한 것은 그만큼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기 위해서였는데, 경직된 공무원 체제가 이를 따라가지 못한 거죠.

취임 9개월째를 맞고 계신데, 원장으로 오시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박재갑 원장: 3년 전, 6년 전에도 원장직 제의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국립 체제로는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정중히 거절했죠. 그러다 이번에 특수법인으로 바뀌면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이유 하나는 마지막으로 봉사하고 싶은 게 있는데, 바로 국방의학원 설립입니다. 우리나라 군 의료체계가 무너져서 군의 최정점 의료기관인 국군수도병원이 3차 의료기관의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마침 2005년도 국방부에서 군 의료체계 개선을 도와달라고 해서 국방의학원 밑그림을 그려줬습니다. 그리고 국방의학원이 설립되면 우리 의료원을 협력병원으로 삼기로 협약을 했죠. 결국 의료원을 살려놔야 국방의학원이 설립됐을 때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원장직을 수락한 또 다른 이유입니다.

국방의학원의 취지는 좋으나 설립에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재갑 원장: 군의 특성상 국군이 있는 대부분의 나라가 국방의학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군 의료체계의 개선을 위해 시작한 일인데, 의사 수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전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병원이 그 역할을 분산 수용하면 된다고는 하지만 총상, 파편상, 외상 등의 군 환자들이 민간병원으로 가게 되면 민심이 흉흉해져요. 합의만 되면 의사 수를 늘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안타깝습니다. 낙후된 군 의료기관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원장에 내정되고 사전에 병원 ‘암행’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박재갑 원장: 취임 3주 전쯤 내정을 받고 먼저 의료원을 둘러봤습니다. 둘러보니 의료원은 ‘잠자는 죽은 조직’이었어요. 한 예로 정문 수위가 탄광의 광부처럼 시커먼 옷을 입고 땅만 보고 서 있는 겁니다. 누가 들어가고 나가는지 관심도 없어요. 주말에 왔더니 화장실 청소가 안 돼서 악취가 진동했고, 여기저기 쓰레기가 널려 있었습니다. 건물 옥상에는 몇 달을 안 치웠는지 담배꽂이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이걸 보면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개선사항을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임 후 추진 중인 각종 개혁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원장님 집무실 축소였는데, 불편하진 않으신가요.

박재갑 원장: 잠자는 조직을 흔들어 깨워서 함께 뛰어야 하는데, 뛰려면 먼저 단합이 필요합니다. 단합이 되지 않으면 숨이 차서 따라오지도 못하고 힘든 일은 하려고도 하지 않죠. 단합이 되기 위해서는 투명경영 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투명하려면 모든 걸 공개하는 수밖에 없죠. 제가 쓰고 있는 원장실 크기는 13.2㎡(4평)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3명의 직원들과 이 공간을 함께 쓰는 이유도 ‘공개’에 목적이 있습니다. 원장실 문에 달린 불투명 유리창도 투명창으로 교체해 밖에서 훤히 보이도록 만들었어요. 또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전화통화 내용은 아내와의 통화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록해 파일로 보관합니다. 누가 원장실에 다녀갔는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는지도 다 기록하죠. 비밀없는 조직을 만들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가 작은 방을 쓴다고 해서 다른 직원들까지 공간을 적게 쓰라는 말은 아닙니다. 대신 원장이 4평 공간을 직원들과 함께 사용하다보니 업무 공간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초기 개혁 당시 담장 허물기, 화장실 개보수 등 작은 부분부터 시작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겠지요?

박재갑 원장: 사소한 것이지만 그것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병원 담장을 허물고 냄새나는 화장실부터 고쳤습니다. 지금은 의료원 앞쪽 담장을 모두 허물고 나무를 심었어요. 투명경영 차원에서 그렇고 지역주민들이 언제나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개방 공간으로 만든 겁니다. 예전에는 담장에 광고 현수막들이 널려있었고, 담장 안으로는 쓰레기와 불법주차 차량들이 늘어서 있어 미관을 찌푸리게 했던 공간입니다.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화장실 역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악취가 진동해 들어가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가만히 보니 배수관이 문제인

것 같아 보수를 지시했는데,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두 달이 걸리더군요. 이렇게 기본부터 손을 댄 것은 환경 정화뿐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자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투명경영을 위한 병원시스템 개혁에 관한 내용도 들려 주시죠.

박재갑 원장: 의료원 개혁의 가장 큰 줄기는 투명경영입니다. 그동안 공무원 조직으로서 가져왔던 주인의식 부재, 융통성 없는 경영 등의 폐단을 없애고자 138개의 개혁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이 개혁안에 기초해 바뀌었거나 바뀌고 있는 중이죠. 일일 수입과 지출 보고, 구매 및 회계 등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감사팀 운영, 모든 PC 모니터 화면을 출입구를 향하게 놓을 것 등이 개혁 과제들입니다. 저 또한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매주 넷째 주 월요일 아침에는 직장발전전략회의가 열리는데, 이 시간에 한 달간 운영된 의료원의 모든 내용이 보고됩니다. 심지어 제가 장관께 보고한 내용과 지시받은 내용까지 모두 공개하죠. 별도로 문의하거나 알아볼 게 없도록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자리입니다.

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용역사업과 관련해서는 홈페이지에 모든 회사 정보와 용역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용역입찰도 관련 업체를 모두 불러 한 자리에서 진행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시스템이 바뀐다’는 생각으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계신데요. 교육 과정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박재갑 원장: 병원이 특수법인이 되면서 신분변화에 두려움을 느낀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직원들에게 취임하면서 “당신들 한 명도 못 내보냅니다. 대신 그동안 많이 놀았으니 일 좀 합시다”라고 했어요.

의료진에게 연구와 공부는 기본입니다. 또 기존 직원들을 끌어안고 함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정신을 무장시키고 공부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직원교육입니다. 사람은 같은 능력을 가졌더라도 옆에서 어떻게 트레이닝을 시키느냐에 따라 성장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죠.

매주 월요일 아침 300여 명의 직원들이 강당에 모이는데, 첫 주는 명사특강, 둘째 주는 첨단의학특강, 셋째 주는 서비스특강을 개최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에는 공공보건의료최고위정책과정, 수요일 저녁에는 공공보건의료최고지도자과정과 응급의료최고위정책과정이 운영돼 직원 50~60명이 2시간씩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과 수요일 점심시간에는 ‘NMC건강강좌’라는 10분짜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스태프가 발표하고 직원들이 듣는 형식입니다. 스태프들은 발표를 위해서 공부하게 되고, 직원들은 이 시간을 통해 의학정보를 얻게 되죠.

이 외에도 주 1회 저녁시간을 이용한 영어회화반을 운영하고 있고, 매주 화요일 아침에는 6시 30분부터 연구과제발표회를 통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학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과거 침체되었던 조직분위기가 상당히 고무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병원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해야 다른 공공의료기관들의 범인화 추진에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 직원들의 복지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박재갑 원장: 개혁의 주체는 결국 사람입니다. 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면 개혁의 성과도 그리 오래 가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바꾸면서 직원들에 대한 복지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복리후생은 유관기관에서 하는 것은 다 찾아서 해주자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스스로 찾아서 직원들에게 필요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라’라는 겁니다. 필요한 걸 요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주는 건 진정한 복지도 아니고 생색도 나지 않습니다. 어차피 해줄 거라면 미리 찾아서 해줘야 직원들도 원장을 믿죠.

간호사들의 기숙사 시설 보수 공사도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복지 개혁안입니다. 지어진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한 번도 공사를 하지 않은 기숙사를 옷장부터 침대, 화장실까지 모두 새로 교체했습니다.

출산 직원의 병원 무료 이용 및 출산 여직원 유급휴가 4개월, 전 직원 생일축하, 친절직원 포상 등도 모두 새롭게 도입된 제도들입니다.





박재갑 원장이 제안하는 운출생운 캠페인

모든 개혁에 앞서 진료의 질 향상과 전문성 확보가 병원의 위상을 결정짓는다고 봅니다. 이 분야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박재갑 원장: 진료의 질적 향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우수 의료진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오랜 경험과 연륜을 가진 스타급 의료진의 영입이죠. 능력있는 의사라면 제 연봉의 두 배를 주고라도 데려올 생각입니다. 서울대 의대 신경외과 출신의 한대희 뇌심혈관센터장과 역시 서울대 의대 성형외과 출신으로 안면기형 성형의 권위자인 박철규 성형외과장이 스타 의사 모시기의 대표적인 경우죠. 한편으로는 젊고 유능한 인재를 영입해 스타 의사로 키우는 전략도 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1년도 보수 체계를 상향 조정했고, 그래서 전국의 우수한 전공의들이 우리 병원에 지원하도록 만들면 병원의 위상도 그만큼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원장님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금연운동’이 떠오릅니다. 의료원에서도 금연운동을 하고 계시고, 더불어 ‘운출생운’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박재갑 원장: 우리나라는 1년에 5만 명, 하루 130여 명이 암, 뇌심혈관질환 등으로 사망합니다. 그 중 암 사망 원인의 30%가 담배입니다. 담배는 독극물이고 마약입니다. 이걸 만들어 판다는 것 자체가 국가의 부도덕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국립암센터에서부터 금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5대 사망질환만 따지고 봐도 담배의 제조 및 판매 금지를 추진해야 합니다. 담배만 끊으면 암 사망이 30% 줄고, 뇌심혈관질환도 15~20% 줄어듭니다. 흡연을 하면 우울증이 4배 늘어나는데, 우울증 환자의 18%가 자살을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사망률 4위가 자살일 만큼 심각한 문제인데, 자살도 흡연과 관련이 있어요. 당뇨병도 그렇습

니다.

그런데 의료원에 와서 보니까 더욱 강력하게 금연운동을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립중앙의료원장은 5천만 국민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금연과 함께 ‘운출생운(運出生運)’ 운동입니다. ‘운동화 신고 출근하고 생활 속에서 운동하기’의 약자로 바쁜 일상에서 따로 시간 내서 운동하지 말고 평소 생활이 운동이 되도록 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고 출근하고 근무하는 동안에도 운동화를 신고 활동하라는 의미에서 만든 말입니다.

이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1200명 전 직원들에게 운동화를 지급하고, 지난 10월 25일 직원 700여 명과 함께 남산 걷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직원들은 의료원에서 운동화를 신고 뛰어다닙니다. 내년부터는 국민생활체육회와 MOU를 맺고 운출생운 캠페인을 전국에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료원의 강남 이전 계획은 어떻게 진전되고 있습니까.

박재갑 원장: 2014년 서울 서초구 원지동으로 의료원을 이전한다는 계획이 발표됐지만 사실 민감한 사항입니다. 현재 타당성 검토를 위한 외부 용역을 의뢰했고, 용역 보고서가 나오면 그에 따라 최종결정권자인 보건복지부 장관께 보고하게 됩니다.

초기 계획은 현 병원 부지를 매각해서 원지동에 1천 병상 규모의 첨단 병원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료원은 환자의 26%가 취약계층으로 그들이 찾는 강북의 대표병원인데, 강남으로 이전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더구나 이미 성모병원이나 삼성의료원 등 첨단병원들이 주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굳이 1천 병상의 병원을 짓는다는 게 국가적인 전략 차원에서 맞는 일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국가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시설, 즉 국립외상센터가 강남에 들어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대형 외상 환자들은 헬기 이송이 우선인데, 강남은 경부고속도로 선상으로 헬기 이착륙이 용이하거든요. 한편으로는 기존 의료기관들이 투자하지 못하는 곳에 투자해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기대하는게 좋겠죠. 그리고 현재의 의료원은 국가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진료를 담당하도록 그대로 두는 게 바람직합니다.

병원 업무에 서울대 의대 교수 겸직, 그리고 틈틈이 강연활동까지 하시는 등 정말 바쁜 하루하루일 것 같습니다. 평소 시간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박재갑 원장: 서울대 교수를 겸직하다 보니 시간을 쪼개 분단위로 사용해도 벅찰 정도로 바쁘긴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일주일 중에서 월, 수, 금 3일은 의료원으로 출근하고, 화, 목, 토 3일은 서울대병원으로 출근합니다. 화요일 아침의 경우는 먼저 병원으로 출근해 회의를 마치고 서울대병원으로 가서 외래를 본 후 오후에 다시 의료원으로 나오죠. 목요일은 서울대병원에서 4건의 대장암 수술을 집도합니다. 토요일도 서울대에서 컨퍼런스가 끝나면 바로 의료원으로 옵니다.

평일에는 보통 6시쯤 아침식사를 하고 출근하고, 저녁시간은 주 2회는 의료원에서 하는 최고위과정 두 개를 듣고, 주 2회는 성균관대 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는 등산을 갑니다. 일요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집 근처 우면산에 올라가 한두 시간씩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재임 기간 국립중앙의료원의 미래 위상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재갑 원장: 서울대병원이나 국립암센터의 경우 한 병상 당 4억 원을 벌고 4억 원의 비용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의료원은 한 병상 당 1억 원을 벌고 1억 5000만 원이 나가는 구조입니다. 500개 병상이니 1년에 250억 원 적자가 나는 셈이죠. 병상 당 1억 5000만 원만 맞추면 적자는 먼

하는데, 그 전략은 바로 의료원의 신뢰 회복입니다. 신뢰도 회복과 함께 의료기술도 업그레이드돼야 합니다. 향후 3년간 매년 약 300억 원씩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약속된 3년의 투자가 아니라 최소 10년은 투자를 지속해서 병원의 자생력을 키워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런 투자가 없어서 자생력을 잃고 링거를 꽂은 병원이 되고 만 겁니다.

저는 취임하면서 3년 내에 병원 적자를 해소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300억 원씩 10년간 꾸준히 투자하면 그 돈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전액 눈에 보이는 시설이나 장비로 만들어놓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10년 후에는 국민들이 볼 때 ‘굳이 대학병원 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할 정도로 공공의료 개선과 예방에 대비하고, 의료보건에 관한 한 국내 병원의 만행 역할을 할 정도의 수준이 되고, 전국에 전염병이 창궐할 때 환자들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병원의 면모를 갖추는 게 목표입니다.

원장님께서서는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연구원 활동에 관심을 갖고 강사로 활동하는 등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원에 대한 제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재갑 원장: 2011년, 인간개발연구원이 창립 36주년을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인간개발’이라는 한 우물만 파 오신 장 회장님의 열정과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가발전에 큰 공헌을 해온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매주 쉬지 않고 조찬세미나를 개최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생학습의 장을 만들어 학습하는 사회를 이끌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 발전사에 기록될 큰 업적입니다. 앞으로도 연구원 본래의 취지에 맞는 다양한 교육사업을 전개해 나가길 바랍니다. 저 또한 가끔 강사로 참여할 기회가 있는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박재갑**



제7회 찾아가는 CEO교실

포스코

광양제철소

“10년 만에
세계최대 규모로
성장한 광양제철소”

본원은 지난 10월 29~30일, 1박2일간 최종태 포스코 사장(2010년 5월 20일 제1646회 조찬세미나 강사)의 초청으로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방문하는 '제7회 찾아가는 CEO교실' 행사를 가졌다. '달리는 공부방'을 시작으로 40여 명 회원들의 열정과 기대가 싹싹한 날씨조차 뜨거운 열기로 뒤바뀐 이번 일정을 함께 따라가 본다. - 편집자 주



- 1. 전주 현대자동차공장 견학을 마치고
- 2. 전주 현대자동차공장 브리핑 시간
- 3. 2제선공장 4고로에서 브리핑



현대차의 저력을 보여준 전주공장

3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간략한 브리핑을 시작으로 공장 견학에 나섰다. 회원들은 먼저 트럭공장으로 안내되었다. 때마침 트럭공장의 내부사정으로 공장안은 우리 일행의 발걸음과 기계음을 제외하고는 고요함이 감돌았다. 4만여 개 업체들과 계약된 현대자동차의 저력을 보여주듯 공장안은 무수히 많은 부품들로 가득 매워져 있었다. 버스공장으로 이동한 일행은 버스가 완성되는 작업장을 둘러보며, 빠른 작업과정에서부터 세세한 재확인 공정까지 그 완벽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세계 최고의 포스코 광양제철소

전주를 거쳐 광양에 들어서자마자 포스코 관계자의 안내와 함께 광양제철소 견학이 시작되었다. 고석범 상무의 환영 인사와 브리핑을 들으며 광양제철소의 축소모형판을 보자, 불과 10년 만에 여의도 5배 크기의, 세계에서 가장 큰 제철소로 발돋움한 대역사가 이루어진 곳에 도착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군더더기 하나 없이 깔끔하게 정비된 제철소 내의 모든 공정은 자동화, 전산화 되어 있었고, 악천후에도 입출항이 가능한 전천후 부두와 자동환경감시시스템 등을 갖춘 21세기형 첨단 제철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광양제철소를 세계 최고의 자동차강판 전문 제철소로 육성한다는 목표로 소품종 대량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공정의 일부를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열연공장에 직접 들어가 뜨겁고도 생생한 과정을 피부로 느끼며, 액체 상태의 용강이 고체가 되





3



4



5

- 3. 포스코 광양제철소 브리핑 현장
- 4. 포스코 영빈관 백운대
- 5. 포스코 광양제철소
- 6. 흥국사
- 7. 2일차 여수에서의 마지막 오찬

는 연속 주조공정과 보안이 철저한 POSCO 제련소 등도 둘러보았다. 철광석을 녹여 쇳물을 만드는 공정은 제선공정으로 철광석과 유연탄을 각각 소결 공장과 코크스 공장으로 보내 소결광, 코크스를 만든 후 고로에 넣고 1200℃의 뜨거운 바람을 불어 넣으면 코크스가 쇳물로 만들어진다. 포스코가 지금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숨은 이야기들은 우리의 가슴을 더욱 단단하고도 뜨겁게 만들어주었다.

최종태 사장의 배려로 특급호텔에 버금가는 시설과 분위기로 편안한 휴식을 안겨준 포스코 영빈관 백운대에서 포스코 임직원들과 담론을 나누며 일행의 깊은 밤은 그렇게 저물어갔다.

이충무공의 발자취를 따라가 본 여수

30일 아침, 일우선박 서정권 회장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여수 이충무공 사적지 탐방은 흥국사를 기점으로 시작되었다. 거북선이 건조된 선소유적지, 충무공을 기리며 건립된 충민사와 진남관을 둘러보며, 그의 뛰어난 용맹함과 업적에 입을 모아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뛰어난 입담과 재치를 선보인 해설사의 설명에 사적지 탐방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지나가 어느새 마지막 목적지인 '여수엑스포2012' 홍보관에 이르렀다.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테마로 해양 녹색경제로 이루어질 2050년의 미래를 조명하고 있는 홍보관은 2012년 5월 12일부터 석 달 동안 개최될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박람회인 여수엑스포를 기대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일행은 서정권 회장이 준비한 장소로 자리를 옮겨 오찬을 즐기면서 오늘의 자리를 준비한 장만기 본원 회장과 서정권 회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그렇게 1박2일의 일정을 모두 마친 일행은 다음 번 찾아가는 CEO교실을 기대하면서 이틀간의 여정에서 느낀 점들을 이야기 하며 서울로 올라오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김재민**



6



7

2010 인경희배
추계 친선골프대회

11월의 그린에서 가을의 절정을 느끼다



가을의 끝자락, 나무들이 저마다 제 잎을 떨구어 내느라 분주하던 11월10일(수)에 곤지암에 위치한 그린힐C.C에서 2010년 인경희배 추계 친선골프대회가 열렸다. 인경희 회원 및 가족, 그리고 평소 인간개발연구원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감사님 등 30여 명의 참가자들이 함께 해 더욱더 빛나는 자리가 되었다.

대회가 열린 날은 강추위를 예견하는 일기예보가 있었으나 기분 좋게 어긋나 화창한 날씨 속에서 깊어가는 가을 날씨를 만끽하며 상쾌하게 경기를 치를 수 있었다. 경기 후에는 만찬과 함께 시상식 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회는 친선대회임을 감안해 모든 참가자가 수상하는데 의의를 두

후원과 협찬을 감사드립니다

- 강학중 한국가정경영연구소 소장 | 저서 <가족수업> 40권
- 두상달 가정문화원 이사장 | 저서 <아침키스> 30권
- 박이락 (주)성한트렌스텍 대표이사 | 후원금 50만 원
- 박재돈 (주)한국파마 회장 | 유산균제제 라피노스 30개
- 이용국 신원헬트공업(주) 회장 | 후원금 100만 원
- 이종원 (주)리-사이트 대표 | 김아원 작가 크로키 작품 1점
- 김석문 신일팜글라스(주) 대표이사/도르만스코리아 회장 - 도르만스 커피 M Set 40개



도르만스 슈프리미엄 인스턴트 커피는 최고의 로스팅 포인트를 준수하여 엄선된 원두를 갈아 만들어 부드럽고 편안한 향과 고급원두의 맛을 전해드립니다. 도르만스는 1950년에 설립되어 케냐 수출의 선두에 서있는 최고급 품질의 커피 전문 회사입니다. 도르만스 커피는 최고급 품질의 커피를 생산하여 케냐와 탄자니아 전역 및 미국, 유럽, 일본 등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으며, 커피 애호가와 로스터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문의: 02-3431-3182/ www.dormans.co.kr]



고 시상식을 진행해 대다수의 참가자들이 각종 수상을 하는 등 모두가 즐거운 시상식이 되었다. 특별히 이번 대회를 위하여 협찬해주신 분들로 인해 참가자 모두가 마음과 양손이 풍성한 하루가 되었다.

다시 한 번 인경희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 아끼지 않고 지원하시는 이용국 신원헬트공업(주) 회장, 박이락 (주)성한트렌스텍 부회장, 이종원 (주)리-사이트 대표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번 대회를 위해 자사제품과 후원금을 협찬해 주신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1. 2010 친선골프대회가 11월 10일 그린힐C.C.에서 열렸다.
2. 조우승 차지한 김영진 원장
3. 라운드 후 열린 만찬 및 시상식
4. 보기상 수상하는 흥영표 사장
5. 메달리스트상 수상하는 윤욱이 사모님

■ 문종금 대한삼보연맹 회장 | 천연살균 은나노 가슴기 4대



기존의 제품은 은나노가 발생하지 않거나 은나노를 발생시키기 위해 전기 분해 방식을 이용하므로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 제품은 순에서 자연적으로 은나노가 발생하여 가슴기를 자동으로 살균하고 은나노가 공기 중으로 나와 청정한 습기를 실내에 공급합니다. 이 제품은 대한삼보연맹의 후원 기업에서 생산하여 국내외에 출원한 특허 기술로 제작되었으며, 대한삼보연맹의 발전을 위해 제품 공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통해서 발생한 수익은 삼보의 국내 저변 확대 및 대한삼보연맹의 국제 위상을 다지는 사업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문의: 대한삼보연맹 오영탁 본부장 02-6248-5525)

■ 박준서 (주)글리프스 대표이사 | 명품 볼마커 BM-06-1 2세트



글리프스는 퍼터와 전통공예문화를 접목한 세계최초의 골프퍼터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현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4대 국새를 만든 장인들이 직접 만든 정통 수제품으로 국빈선물용으로 선정되었으며 골프퍼터에 황제의 옥새화와 정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금속공예, 조각, 전각, 옷칠, 나전칠기 등 최고급 공예기법을 사용하여 소장가치를 높인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문의 : 02-2692-2515/ www.gleefs.com)

■ 홍해근 (주)풋바란스 대표이사 | 세로토닌 슈즈 남성용 1컬레, 여성용 1컬레



풋바란스는 맨발로 걸을 때 세로토닌이 분비된다는 것에 착안해 닥터세로톤슈즈 아치 부분에 사용자 아치에 꼭 맞게 높이 조절이 가능한 ASD를 적용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현대인들이 많아진 가운데, 풋바란스에서는 인체공학적인 제품을 개발하여 국민 건강과 행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닥터세로톤슈즈를 개발했습니다. (문의: 02-501-0786/ www.seroton.co.kr)

[회원소식]

■ **(사)세계미술문화진흥협회(이사장 강석진)**는 G20정상회의 참여국가 간의 문화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11월 8일부터 14일까지 한국프레스센터 1층 전시관 전관에서 G20회원국가의 화가 100여 명이 함께 참여하는 'G20 World Artist Festival'을 개최하였다.

■ **(주)다-원(대표 이계옥)**은 지난 11월 18일, 선릉 TOZ에서 모두가 함께 이기는 사회, 모두가 함께 이기는 조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거래 협상 전문가 김병국 변호사와 소통 전문가 이계옥 교수가 함께 '갈등조정과 소통의 리더십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재능교육(대표이사 양병무)**은 지난 11월 27일, 제20회 전국시낭송경연



본선 대회 관람에 본원 회원들을 초대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국 16개 지역예선 최우수상 수상자들

의 열띤 시낭송 경연이 펼쳐졌으며, 서울시무용단의 무용, 그란테오페라합창단의 합창, 국내 1호 샌드아트인 김하준씨의 샌드아트(Sand Art) 등 시를 테마로 한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졌다.

■ **(주)리사이트(대표 이증원)와 국제작은작품미술제운영위원회**는 공동으로 한국미술의 현재적 모습을 대변하고 선도할 수 있는 한국미술과 인도네시아 작가와의 아름다운 소통을 위한 교류전을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

- 기간 : 2010년 12월 13일~ 2011년 1월 12일
- 장소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간다리아시티몰 미술관"
- 주최 : 국제작은작품미술제운영위원회
- 후원 : 주인니한국대사관, (사)한국미술협회, 한국전통문화예술진흥협회
- 협찬 : 롯데, CJ, G마켓, (주)에버그린엠에스티

■ **밀리언셀러 <무지개원리>의 저자이자 제1484회 경영자연구회 강사이신 차동엽 신부(인천가톨릭대학교수 / 미래사목연구소 소장)**는 최근 글로벌 트렌드가 되고 있는 바보예찬론과 스스로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바보스러움의 유익을 담은 신간도서 <바보존>(야베크)을 출간했다.



■ **김종훈 한미파스스 회장은** 최근 인생의 절반 이상을 보내야 하는 직장을 천국으로 만드는 한미파스스의 사례를 담은 저서 <우리는 천국으로 출근한다 : 한미파스스 김중훈 회장의 유토피아 경영>을 출간하였다. 그가 직접 저술한 책을 통해 한미파스스의 천국으로의 경영행보를 살펴보고, 독자들이 꿈의 직장으로 나아가는 길, 그리고 진정한 경영 전략과 혁신의 원천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다.



■ **이재욱 중앙에프앤에스(주) 사장**은 Junior Achievement Korea 자원봉사자 자격으로 11월 20일 성북구에 위치한 돈암초등학교에서 5학년 9반 일일교사로 봉사활동을 했다.

■ **김신배 SK C&C 대표이사 부회장은** 지난 11월 22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사회적기업인 한국IT복지진흥원을 방문하여 '행복니눔 PC 클리닝 봉사활동'을 펼쳤다.

■ **이덕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경제 대표이사**가 농업경제 대표이사직을 연임하게 되었다.



■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제1386회 경영자연구회)**은 지난 12월 1일,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외룡리에 소망교도소를 개소하였다.



■ **(사)대한삼보연맹(회장 문종금)**은 지난 12월 12일, AW 컨벤션센터에서 한국과 러시아가 국교를 맺은 지 20년이 되는 해를 맞아 '삼보인의 밤' 행사를 열고 본원 회원들을 초청했다. 이번 행사에는 약 800여 명이 참

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 **이심 대한노인회 회장**은 국내 복지발전과 노인권익신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2월 20일 오후 6시 롯데호텔 서울 3층 사파이어볼룸에서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ACAD) 총동창회(회장 이정익)가 수여하는 '제3회 자랑스러운 국가정책인상'을 수상하였다.



- **장선호 서울특별시의회 대외협력이사(베스트이비인후과 원장)**는 휴대용통신기기에서의 훈민정음 원리에 기초한 한글입력자판신언해형 단영자판을 개발하여 특허를 받았다. 이비인후과 전문의로 평소 진료 하면서 발음기관에 대한 연구와 관심을 갖던 중 휴대용 통신기기의 한글자판에 대한 애로점을 발견, 이를 개선하고자 발음기관을 응용한 한글자판을 개발하게 되었으며 이를 특허기술로 인정받은 것이다.



- **유한킴벌리(사장 최규복)**는 한국표준협회에서 주최한 '2010 지속가능성지수' 조사에서 생활용품 부문 1위에 올랐다. 특히 유한킴벌리는 환경보호, 공정경쟁 등 사회적임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조사에서 유한킴벌리는 600여 명의 전문가 및 1만 4000여 명의 고객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인 64.5점(100점 만점)을 받아 전체 120개 참여기업 중 최고점수를 획득했다.
- 환경경제TV '일과 사람'에서는 본원과 봄온커뮤니케이션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CEO 미디어 스피치 과정' 수료자 중 일부를 방송에 모시고 있다. 첫 번째 출연자는 **한홍섭 삐띠프랑스 회장**으로 지난 11월 21일(토)에 방송되었으며, 두 번째 출연자는 **박재돈 한국파마 회장**으로 지난 12월 18일(토)에 방송되었다.
- **웅진코웨이(사장 홍준기)**는 12월 29일 오후 합창 경연대회로 2010년도

종무식을 치렀다. 전 임직원이 음악으로 하나 되는 축제의 장으로 올해 종무식을 꾸며보자는데 신입사원과 홍 사장의 생각이 일치해 이뤄진 행사로 대상팀에게는 전원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졌다. 금상팀은 200만 원, 은상팀은 100만 원, 동상팀은 50만 원의 상금이 돌아갔다.

- 도시가스업체 삼천리는 14일 **한준호(제1409회 연구회 강연) 대표이사 부회장을 대표이사 회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한 회장은 옛 산업자원부 기획관리실장, 중소기업청장,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을 거쳤다. **김경이 삼천리ENG 대표이사 사장은 부회장**으로 승진하였다.



- **유상옥 코리아나화장품 회장**의 공적비 제막식이 지난 11월 23일 고향인 충남 청양군 대치면 상갑리 마을회관에서 주민 및 코리아나 임직원, 초청인사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25회 백천상 시상식과 함께 열렸다. 유 회장의 공적비는 상갑리에서 태어나 코리아나화장품을 창업하는 등 전문경영인으로 활동하고, 코리아나 화장박물관과 미술관을 건립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모란장, 문화훈장 옥관장을 수훈하는 등 자랑스러운 상갑리인임을 알리고자 마을 주민들의 성금으로 만들어졌다.
- **롯데호텔(사장 좌상봉)**은 지난 11월 23일 소공동 롯데호텔 아테네가든에서 메이저리거 추신수(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선수의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롯데호텔 홍보대사로 위촉된 추신수는 후원내용과 홍보대사 직무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추신수는 2011년 11월 20



일까지 1년간 전국 롯데호텔의 VIP용 객실 무료이용 및 호텔 내의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되며, 롯데호텔이 진행하는 자선행사에도 참여하게 된다. 또한, 부산롯데호텔에는 추신수의 '스타룸'이 개설될 예정이다. 추신수는 자선행사와 스타룸 이용 수익금의 일부를 유소년 야구발전기금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전순표 (주)세스코 회장은** 지난 11월 13일 모교인 동국대학교에 6억



원을 기부했다. 동국대 총동창회장이기도 한 전 회장은 오영교 동국대 총장에게 '108프로젝트' 등 학교의 발전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기원한다며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전 회장은 지난 8월 제24대 동국대 총동창회장에 취임한 바 있다.

■ 주차유도시스템 개발업체 **TIS정보통신(사장 조석순)**은 12월 9일, 서울시 송파구 잠실롯데월드에서 '스마트파크'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 시스템 구축은 잠실 롯데백화점, 마트, 호텔, 어드벤처, 스포츠센터 등 5개 점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스마트파크는 주차장 입구, 각 층, 각 통로 초입의 안내판이 빈 주차 공간 대수 및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또 각 주차면의 센서와 파킹 램프가 적색, 녹색으로 빈 주차면을 표시해 방문 고객들이 주차장 입구에서 빈 주차면까지 최소시간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 고재두	비디피로지스틱스코리아(유)	대표이사	1월 02일
■ 오성호	점보실업	회장	1월 03일
■ 방기봉	[주]E&C정보기술	회장	1월 08일
■ 정만우	[주]실버텍스	대표	1월 21일
■ 이승우	나경상(새주)	회장	1월 23일
■ 윤동노	정미원(주)	대표이사	1월 25일
■ 김성귀	신구종합건설(주)	회장	1월 29일
■ 김용희	[주]광인기업	회장	1월 30일
■ 권상훈	한국기업승계컨설팅센터	대표이사	2월 01일
■ 정의승	유비엠텍코리아	이사장	2월 01일
■ 최중보	파란나라	대표	2월 02일
■ 황수	GE KOREA	대표이사 사장	2월 22일
■ 김정국	태극건설(주)	사장	2월 28일

[자녀분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 **윤영상 (주)다산 회장**의 차남 대영군의 결혼식이 12월 15일(수) 신라호텔 다이내스티홀에서 있었습니다.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 **박중주 삼이그룹 고문**의 장남 형룡군의 결혼식이 12월 18일(토) 에스티아웨딩컨벤션 플라호텔에서 있었습니다.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 **권건춘 (주)건은 회장**의 장남 재현군의 결혼식이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 일시: 2011년 1월 19일(수) 오후 5시
 - 장소: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 하모니볼룸

[소모임소식]

■ **YCF(회장 정이안 / 총무 김진욱)** 11월 모임에서는 성공한 증권맨에서



오페라의 매력에 중독되어 오페라 해설자로 변신한 유형종 무지크 바움 대표를 모시고 최고의 영상물과 유쾌한 해설로 오페라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12월 모임은 송년모임과 총회를 함께 진행했다. 특히 지난 12월 모임은 자신의 물품을 경매하고 그 수익금을 전액 기부하는 '나눔'의 시간을 가졌으며, 기부 경매를 통한 수익금은 YCF 명의로 전액 기부될 예정이다.

- 'CEO 미디어 스피치' 1기 수료자의 공식모임 **MS클럽(Media Speech Club, 회장 전순표 / 총무 차승업)**은 세상의 생명들이 결실을 맞이하는 넉넉한 가을에 남부컨트리클럽에서 골프모임과 12월 6일 1차 정기모임을 가졌다. MS클럽은 앞으로 CEO 미디어 스피치를 수료한 각 기수들과의 모임을 가질 계획이다.
- **책 글쓰기를 위한 에세이클럽(회장 김창송 / 총무 이계옥)**은 12월 13일 저녁 6시 강남진진바라에서 1년의 활동을 되돌아보는 송년모임을 가졌다. '오감과 조우하는 행복 더하기'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이채 시인을 초청해 중년을 테마로 한 시 세계에 대해 들어보고, 회원들이 평소 애송하던 시를 낭송하는 한편 김창송 회장의 하모니카 연주를 감상하는 특



별하고도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2011년 첫 모임은 1월 10일(월) 문학의 집*서울에서 가질 예정이다.

- **이중1그룹(회장 신용웅 / 총무 고지석), 다락회(회장 정태익 / 총무 이종원), 인경회(회장 이용국 / 총무 이종원), 인록회(회장 방기봉/총무 차진영)**의 12월 모임은 12월 23일 인간개발연구원 송년모임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연구원 소식]

- **여성인력 활용 제고를 위한 컨퍼런스 개최**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 인간개발연구원은 공동으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성인력 개발'을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11월 4일과 11월 18일 2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11월 4일 1차 세미나에서는 웅진그룹 이진 부회장이 기업환경 변화와 웅진그룹의 저탄소 경영을 통한 여성인력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태현 원장이 기업의 여성인력 활용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11월 18일 2차 세미나에서는 참존의 김광석 회장을 초청해 화장품산업에서의 여성인력 활용 사례를 들어보고, 에디코 김영철 사장으로 부터 여성인재들이 만들어가는 동화 같은 기업의 비전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 **장만기 회장, 한국CEO그랑프리 특별상 수상 및 CBS로부터 감사패 받아**



장만기 본원 회장이 지난 12월 8일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제6회 한국CEO그랑프리 시상식에서 CEO교육 CEO부문 특별상을 수상했다. 한국CEO연구포럼(명예이사장 이현재 전 국무총리)과 머니투데이가 주최하고 서울대 경영연구소가 연구제휴한 이번 시상식에서 장 회장은 지난 35년간 1700여 회에 달하는 CEO조찬세미나를 개최하고 전남 장성군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 공직자 및 주민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한국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장 회장은 같은 달 14일, CBS 공개홀에서 진행된 'CBS 창사56주년 기념식'에서 이재천 사장으로 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평소 CBS의 활동을 외부에서 지원하고 협력해온 사회 각 분야의 저명 인사들을 선발해 수여했으며, 장 회장은 CBS와 본원이 함께하는 '크리스천 리더스 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게 되었다. 한편 장 회장은 12월 5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중국 요령성 단둥시 초청으로 단둥 산업기지를 방문하고 단도이와 함께 한국기업 참여에 관한 논의를 하고 돌아왔다.

- **권기식 원장, 청소년 지혜나눔학교 개교 외**



지난 11월 13일, 전직 총리, 현직 국회의원 등 각계 저명인사 100여 명이 강사로 참여하는 청소년 대안학교 '지혜나눔학교'가 개교했다. 이



학교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지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매주 1회 각계 저명인사들이 무료강의를 할 예정이다. 본원 권기식 원장이 교장을 맡았고 엄기영 전 MBC 사장이 명예이사장을 맡아 활동하기로 했다. 앞서 권 원장은 12월 3일 대한체육회 신하 대한삼보연맹(회장 문종금) 수석부회장에 취임했으며, 7일 발족된 한국현대정치연구회 초대 회장에 취임했다. 이와 함께 권 원장은 엄기영 전 MBC 사장을 회장으로 하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 민간단체협의회를 10일 발족하고 사무총장에 취임했으며, 29일 신문로 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갖고 평창 유치 지지 100만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 일본 정·관·재계 인사 전남 장성군 성공비결 배우기 열풍
장만기 회장 일본순회특강



최근 일본사회에서 한국 배우기 열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 선진국인 일본의 정·관·재계 인사들이 한국 지방자치의 혁신적인 성공 사례를 배우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일본 아오모리현과 다마대학은 전남 장성군의 지방자치 혁신사례를 배우기 위해 '장성 아카데미'를 기획해 16년째 운영 중인 장만기 본원 회장을 11월 17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초청해 도쿄와 다마대학, 아오모리현 등에서 순차 특강행사를 진행했다.

학교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지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매주 1회 각계 저명인사

11월 18일 도쿄 롯폰기 국제문화회관에서 열린 초청강연에는 오다게 요시키 아프리카 창업자, 노다 가즈오 다마대학 명예학장 등 80여 명의 정·관·재계 인사들이 참석해 장 회장으로 부터 전남 장성군과 함께 한 '장성 아카데미'의 성공사례를 들었다. 이날 행사는 장성군의 지방자치 혁신사례를 담은 <주식회사 장성군>의 일어판인 <기적을 불러오는 사람>(양병무·조우진 공저)의 출판기념회를 겸해서 열렸다.

장 회장은 이어 11월 19일 다마대학 내 '파르테는 다마센터'에서 열린 다마대학 지역활성화 포럼에서 기조강연 연사로 초청돼 "한국기업과 자치단체의 활성화를 지탱해온 인재육성 35년의 경험을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특강에 나섰다.

이어 20일에는 아오모리현이 주최하는 '아오모리인재력포럼'에서 "장성군 인재혁신 사례와 인재육성의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주제의 특강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미우라 신고 아오모리현 지사와 '1촌1품 운동' 제창자로 유명한 히라마스 모리히코 전 오이타현 지사 등 지자체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장성군의 혁신사례에 관한 특강을 듣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장 회장은 지난 1995년故 김홍식 군수와 함께 인구 5만 명에 불과한 시골 전남 장성군에 '장성 아카데미'를 만들어 16년 동안 700여 회에 걸쳐 40여만 명을 교육시키는 등 '교육을 통한 혁신운동'을 주도했으며, 이후 전국 대다수 지자체들이 따라하는 혁신 프로그램의 모범이 됐다. 김군수는 김항식 국무총리의 친형으로 지난해 지방으로 별세했다. 장 회장은 "지방자치 선진국인 일본에서 우리의 지방자치 성공사례를 배울 정도로 한국 지방자치가 크게 발전하고 있다"며 "인간개발연구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운영하는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혁신의 중심동력이 되고 있다는 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의 산케이신문, 마이니치신문을 비롯한 13개 언론에서 장 회장의 일본 초청강연을 취재해 소개하는 등 한국 지방자치 혁신 사례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 2011년 설 선물용 회원사 제품 소개

설 선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회원들을 위하여 자사 제품 중 설 선물용으로 저렴하게 판매를 희망하시는 회원이 계시면 본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에 본원 회원사 제품을 우선 구입할 수 있도록 정중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 : 민선아 과장(Tel. 02-445-1948)

[신규회원]

■ 고재두 비디피로지스틱스코리아(유) 대표이사 (법인회원)



1966년에 설립한 국제복합 물류 업체로서 Chemical products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물류회사 본사는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으며 한국은 지사로서 일하고 있다. 세계 150개 국가에 145개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으며 3,000명의 BDP

직원을 유지하고 있다.

- 전화: 02-3703-6401
- 주소: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141-4 미지빌딩 10층
- 참여임원: 강동중 이사, 하상록 팀장, 한석 팀장, 김정환 팀장
- 홈페이지: <http://www.bdpinternational.com>

■ 박두영 거금도 농협 조합장 (개인회원)



박두영 조합장은 농산물 수입 개방에 직면해 있는 농촌현실을 극복하고, 지역주민들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전화: 061-843-7795
- 주소: 전남 고흥군 금산면 대흥리 458

■ 임중연 동국대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교수 (개인회원)



임중연 교수는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스 후즈후(Who's Who) 2010년도 판에 등재되었으며, 천연재료를 사용한 친환경 복합소재 영역에서 뛰어난 연구업적을 인정받고 있다.

- 전화: 02-2260-3810

- 주소: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번지
- 추천인: 강민지 월간골프가이드 대표
- 홈페이지: <http://mecha.dongguk.edu/>

■ 신봉태 광운대 경영대학원 총괄책임교수(개인회원)

신봉태 교수는 광운대 경영대학원에서 CEO골프최고위과정, CEO골프



VIP과정과 골프티칭지도사과정, 골프레저개발 경영최고위과정, 골프사관학교, CEO골프부부최고위과정, 여성골프최고위과정 등에서 19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2011학년도 봄 학기 원우를 모집하고 있다.

- 전화: 02-2202-5810
- 주소: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447-1 광운대 경영대학원
- 홈페이지: <http://gsba.gwu.ac.kr>

■ 박종호 한국교육개발원 국제통계팀 연구위원 (개인회원)



박종호 연구위원은 한국의 전통과 현실에 맞는 새로운 한국적 교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한국교육이 당면한 제반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혁신적인 교육체제를 개발하고 있다.

- 전화: 02-3460-0316

- 주소: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동 513호
- 홈페이지: <http://www.kedi.re.kr/>

■ 김수지 서울사이버대학교 협력총장 (지식나눔회원)



김수지 협력총장은 지난 문경시립노인간호센터에서 개최하는 워크샵에서 강연을 해주시고, 강연료를 본원에 기부하여 지식나눔회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 전화: 02-944-5100

- 주소: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93번지
- 홈페이지: <http://swm.iscu.ac.kr>



2010 인간개발연구원 송년의 밤 - 까르페디엠 carpe diem

한 해의 노고와 열정을 격려하며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는 시간

G20 정상회의, 남아공월드컵, 광저우아시안게임,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사건 등 그 어느 해보다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일들이 많았던 2010년 한 해를 되돌아보며 새해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인간개발연구원 2010 송년의 밤이 '까르페디엠carpe diem'을 주제로 열렸다. 12월 23일(목)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송년의 밤에는 유상옥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전순표 세스코 회장, 이심 대한노인회 회장, 유종하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신상민 한국경제신문 사장,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등 본원 회원과 강사진을 비롯한 각계 저명인사 3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KBS 아침마당에서 구수한 입담을 과시해온 명품MC 이상벽 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행사는 재즈음악의 부드러운 선율을 느낄 수 있는 JS 재즈밴드의 오프닝공연을 시작으로 김정운 휴먼경영연구원장의 미니강연과 경품 추첨 등 다채로운 순서가 이어져 감동과 웃음을 선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

바쁜 연말 일정 가운데 송년의 밤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시는 회원 및 강사 여러분, 그리고 후원 및 협찬을 통해 더욱 풍성한 송년 CEO파티를 만들어주시는 관계자 여러분들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1. 인사말하는 정만기 회장
2. 2010 인간개발연구원 송년의 밤
3. JS재즈밴드의 오프닝공연
4. 김정운 교수의 미니강연
5. 풍성한 협찬품이 걸린 경품추천시간
6. 건배하는 참가자들
7. 이상벽MC와 함께 하는 즐거운 시간

*** 송년의 밤 협찬과 후원을 감사드립니다.**

경북 경주시		경주특산 '황남빵' 10박스	이정복	(주)티피코 대표	좌욕기 1개
공한수	BIG DREAM & SUCCESS 사장	나정태 작가 그림 1점	이종1그룹	신용웅 회장 외(연구원 소모임)	테이블 협찬 / 후원금 100만 원
김경태	한국BP 대표이사	'2011 세계경제 대전망' 도서 30권	이충희	(주)듀오 사장	명품 에트로 핸드백 1점
김광석	(주)참존 회장	골드크림 10세트, 슈퍼36크림 & 에센스 10세트	임오혁	금성기와C&S	미셔널리 넥타이 50개
김석문	도르만스코리아 회장	도르만스커피 B세트 50개	장찬기	(북)해동재단 회장	2011년 달력 200부
김영재	한신전선(주) 회장	테이블 협찬	전남 장성군		장성사과 10kg 3박스
김영철	에디코 사장	테이블 협찬(3개)	전순표	(주)세스코 회장	잡스(Zaps) 선물세트(해충전무솔루션) 10세트
김영호	유한대학 총장	비타민 10세트	정이안	정이안 한의원 원장	여행용 공진단, 산삼약침 10회 시술권
김익영	도예가	도예 작품 1점	정주영	(주)주영도가 대표	영 막걸리 180병
김창규	연희산부인과원장 & 서울탁주협회	서울막걸리 270병, 캔막걸리 270캔	조순	전 경제부총리 / 본원 명예회장	후호 1점
김창송	(주)성원교역 회장	테이블 협찬	지승룡	민들레영토 사장	테이블협찬/민들레영토 4인 가족식사권 5매
류병덕	물고기마을 회장	고급 수족관 1점, 물고기마을 평생회원증 2점	진규춘	한국걸스카우트 서울북부연맹장	파우치 20개
박은희	(주)부자농업 블루밍 이사	한라봉 나무 조경권	차승일	한경아카데미브랜드전략연구소 소장	곰감 7상자
박종현	공군참모총장	F-15K 전투기 사진 액자 1점	천석규	천일식품 대표이사	백화점 상품권 50만 원
설동순	순창전통별미고추장 대표이사	순창 별미 고추장(1kg) 100개	최일목	무크투어(주) 대표이사	제주왕복항공권 2매
성연미	봄은커뮤니케이션	테이블 협찬	최후자	(주)순우리인삼 대표	홍삼천삼액 30포 10상자, 홍삼식초음료 350개
손경식	한국서화원로연합회 회장	휘호 1점	홍승국	에버그린MST(주) 사장	손목시계 10개, 명함지갑 10개
신백훈	농협중앙회 부장	석학 강평환 선생 휘호 1점	홍해근	풋바란스(주) 대표이사	르까프 닥터세로톤수즈 5족
신봉태	광운대학교 교수	CEO골프 최고위과정 수강권	다락희	정태익 회장 외(연구원 소모임)	30만 원
신상민	한국경제신문 사장	한경HI CEO VIP 1년 등록권 20매, 한경아카데미 독서리더클럽 수강권 3매	박성훈	(주)모간 회장	100만 원
안재구	제주롯데호텔 총지배인	제주롯데호텔 2박3일 숙박권	박준봉	부원광학(주) 회장	50만 원
양금주	신도불이제주 대표	제주특산물갈치 3상자	송언기	(주)태창플랜트 회장	50만 원
양병무	(주)재능교육 대표이사	2010년 수첩 200개 / 후원금 100만 원	양종관	남서울대학교 교수	50만 원
유종하	대한적십자 총재	적십자 가족서류기방 3개	이용국	신원헬트공업(주) 회장	200만 원
윤영상	(주)다산 회장	액세서리 10점	화목회	황석희 회장 외(연구원 소모임)	100만 원
이두재	H&D Company 사장	솔고래 김과장의 비밀(속취해소제) 250개	YCF	정이안 회장 외(연구원 소모임)	50만 원
이원기	원풍물산(주) 회장	킨록앤더슨 신사복 수트 1착			
이재욱	중앙에프앤에스 사장	구두티켓 20만 원			

* 가나다 순입니다.

6.2 지방선거 휴회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 열기 식지 않아 2010년 113개 기관과 1000여 회 교육 진행으로 전년 대비 기관수 증가

〈교육컨설팅소식〉

■ 지방자치아카데미, 62개 지역에서 157회 강연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역개발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저명인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 운영되는 지방자치아카데미가 올해로 16년째 운영되고 있다. 지난 95년 장성아카데미로 시작해 평생학습의 대표 브랜드로 명성을 얻고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단체장과 공직자, 주민들의 성원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번 11-12월은 62개 지역에서 157회의 강연이 진행되었고, 2010년 한 해 동안 83개 기관에서 800여 회 강연이 진행되었다.

■ 기업 · 공공기관 · 대학에서 23회 교육



기업 정기교육에서는 YPP디지털에 이요셉 한국웃음경영연구소장, 리바트에 유영만 한양대 교수, 허영호 탐험가, 재능교육에 최윤규 넥스트리인터넷 대표, 세아제강에 김익수 (주)TNV어드바이저 팀장, 대웅제약 경남지역본부에 홍수환 (주)SH45 회장 등이 강사로 참여해 강연을 이

행했다. 공공기관 정기교육에서는 우정사업본부에 허성도 서울대 중문과 교수와 정갑영 연세대 교수가 강연에 나섰고, JDC와 함께 하는 제주글로벌아카데미에 윤은기 중앙공무원교육원장, 이상건 미래에셋 투자교육연구소 이사 등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연에 나섰다.

대학 교육에서는 동국대 경주캠퍼스 최고위과정에 신상훈 유머작가와 김홍신 작가가 강연에 나섰으며, 경북도립대학에서는 11-12월에 걸쳐 방송인 이상벽, 신상훈 유머작가, 홍웅식 한국직무능력개발원장 등을 초청해 하반기 '솔개뜰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로써 기업 및 공공기관은 2010년 한 해 동안 32개 기관에서 200여 회 강연이 진행되었다.

〈교육컨설팅기관 소식〉

■ 우정사업본부, 2010년 우체국금융 자금운용 컨퍼런스 개최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남궁민)는 12월 23일(목) 포스트타워에서 안현호 지식경제부 차관 및 국내외 금융기관 임직원 등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우체국금융 자금운용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우체국금융 자금운용과 관련해 최초로 개최된 행사로 우체국에 금보험과 거래하는 은행·증권사·운용사 등 120여 개 국내외 거래기관과 함께 2010년도 자금운용 성과를 평가하고, 2011년도 시장전망 및 운용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편 자금운용 수익성 제고에 기여가 큰 우수 금융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실시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운용규모가 약 80조 원으로 국민연금 다음으로 규모가 큰 공공자금

인 우체국금융이 2010년 한해 안정적이고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 ‘JDC 글로벌아카데미’ 명품강좌 자리매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변정일)가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JDC 글로벌아카데미’가 국내 최고 수준의 아카데미

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05년 시작한 글로벌아카데미는 지금까지 총 250여 회 강좌를 진행하는 동안 각 분야의 저명인사들이 강단에 올랐으며, 2010년 한 해 동안 80회 강좌에 1만 60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현재 글로벌아카데미는 제주지역, 서귀포시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3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으며, KCTV제주방송, 제주의소리, 제주MBC 등 지역 언론사가 함께 해 현장에 가지 못하는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한편 JDC는 12월 16일 아카데미 수료생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시 지역 제4기 글로벌아카데미’ 발표회 및 수료식을 갖고 수료증, 개근상 수여, 공로패 전달 등 올해 아카데미 성과를 자축하는 시간을 가졌다.

■ 김천·나주시, 일자리대책경진대회 대상·최우수상 수상

김천시(시장 박보생)는 행안부와 고용노동부가 주최하는 ‘지역일자리대책 경진대회’에서 종합대책분야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 ‘대상’을, 브랜드 사업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개 부문에서 동시 수상은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한 진기록이기도 하다. 한편 나주시시장 임성화는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홍경섭 나주 부시장은 인구유출과 초고령사회, 50인

미만 영세업체가 많은 산업구조상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구축과 고대문화권 장소마케팅,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등의 기회요인을 최대한 살려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구미시, 2010 옥외광고 및 공공디자인 우수지자체 선정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기여한 우수 자치단체를 포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2010 옥외광고 및 공공디자인’ 분야 업무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특히 이번 수상은 경

상북도 내에서 유일하게 구미시가 전국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옥외광고 및 공공디자인 선진화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 고창군, 2009 지역개발사업추진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고창군(군수 이강수)의 소도읍 육성사업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09 지역개발사업 추진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군은 전국 12개 시도 55개 소

도읍 167건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적절성과 지역소득 고용창출 및 민원해소 등에 대한 평가에서 이 같은 성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강수 군수는 “명품소나무길과 문화의 광장, 차 없는 거리, 고창읍성 일원은 고창의 문화와 역사, 예술의 심장부로 역할을 톡톡히 해내게 됐다”며 “고창이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0 인간개발연구원 정기교육 운영현황

인간개발연구원은 2010년 한 해 동안 113개의 기관과 함께 1000여 회 이상의 정기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교육으로 인연을 맺은 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더욱 좋은 교육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구분	기관명	교육명	구분	기관명	교육명	구분	기관명	교육명
공공 기관	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특강	군부대	공군 제10비행단	하늘사랑아카데미	경북	문경시청	이장단워크숍
		광주지역본부특강		공군 제15비행단			상주시청	상주아카데미
	문경시립노인간호센터	노인위안잔치		공군 제16비행단			영양군청	해달아카데미
	직업워크숍	공군 제18비행단		예천군청			예천인재아카데미	
	목포공공도서관	중고교생 특강		공군 제19비행단			청도군청	싱그린아카데미
	우정사업본부	Post Academy	육군본부	청송군청	청송아카데미			
	전남교육청	학부모독서도우미 연찬회	지자체		거제시청		거제시민자치대학	
	전남채신청	전남POST 수요열린아카데미	서울	강서구청	강서 지식비타민 강좌		거창군청	21C행복거창아카데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제주시글로벌아카데미		광진구청	GREAT 광진아카데미		경남도청	녹색생활실천다짐대회 특강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서귀포시글로벌아카데미		도봉구청	도봉교양대학		남해군청	보물섬아카데미
제주도의회	면세사업단영업차워크샵	영등포구청		영등포아카데미	부산시강진군청	가장아카데미		
한국기후변화대응 연구센터	2010 한국기후변화포럼	용산구청		용산아카데미	부산 기장군 (사)정관주인자치회	자치대학교육프로그램		
한법재판소	전직원워크샵	종로구청	종로교양강좌	부산서구청	서구미래아카데미			
NA공사	전직원교육	경기	가평군청	에코피아-가평아카데미	부산수영구청	수영포럼		
대웅제약	경남지역본부			Man To Man 어울미당	수영정기총회 특강			
대한조선	승진지특강			여성주간기념식	양산시청	양산시민아카데미		
동국산업	직원특강			가평군이장연합회특강	울산중구청	직원월례특강		
동부제철	협력사시장단워크샵			보육시설원장 워크숍	진주시청	참진주아카데미		
동양석판	노사화합워크샵	공직자가족 한마음 초청강연	창원시청	창원아카데미				
기업	리바트	리바트아카데미	강화군청	강화아카데미	경남	창원시청	명곡동주민자치위원회특강	
		품질혁신포럼	부천시청	복사골아카데미			주민주치위원회공통체형성교육	
	AS기사교육	부천원미구청	명시초청특별강연	하동군청			창의실용마인드 함양교육	
	대리점시장특강	용인시청	직원 월례특강	함안군청			함안군민대학	
	리첸사업부 특강	강릉시청	강릉비전 금융특강	함양군청			함양군민자치대학	
	빅흥근 흥패션	신제품발주회	강원도청	기후변화대응워크샵			고창군청	21세기 고창미래포럼
	SK루브리컨츠	대리점직원특강	양양군청	밀레니엄 양양아카데미			임실군청	희망임실아카데미
	세이제강	직원특강	원주시청	베스트원주아카데미			장수군청	장수사랑 자치학교
	유영제약	신년워크숍	정선군청	아리ारी 정선아카데미			전주시청	열린시민강좌
	유큐브	협력사초청행사	평창군청	정선5일장 관계자 특별교육			정읍군청	직원진절교육
재능교육	최우수교사 특강	철원군청	HAPPY700 평창아카데미	진안군청	마이현당			
토마토저축은행	임직원특강	충북	제천시청	푸른재천아카데미	전남	고흥군청	고흥성공아카데미	
포스코건설	경영지원실 조직활성화 워크샵			진천군청			생거진천혁신대학	2010하반기 지역자율방재단교육
YPP디지털	YPP아카데미			당진군청			당진아카데미	자원봉사 특강
경남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대전서구청			사람이자치대학	찾아가는 일동군민아카데미
경북도립대학	솔개들이아카데미			대전중구청			중구아카데미	거금도 특강
동국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부여군청	굿프레지치대학	바르게 살기협의회 면민, 괴역면민				
경주캠퍼스	직원특강	논산시청	논산아카데미	여등자치포럼21				
군부대	공군본부	하늘사랑아카데미	서산시청	서산아카데미			광주광산구청	여성주간기념식
		대령역량강화교육	아산시청	아산시민아카데미			광주동구청	동구아카데미
		정책실 창의성 특강	예산군청	예산군 교양강좌			나주시청	경로대학 풀강의제
		장군 및 주요보직자	청양군청	청양아카데미	목포시청	서남권아카데미		
		민간 경영기법 연수계획	경주시청	화백포럼	무안군청	여성주간기념식		
주임원사 특강	구미시청	아은아카데미	김천시청	김천아카데미	목포영재교육원 학부모연찬회			
공군대학	하늘사랑아카데미	김천시청	김천아카데미	원도군청	청해진화강좌			
공군교육사령부		대구달서구청	행복아카데미	장성군청	21세기 장성아카데미			
공군군수사령부		대구달성군청	달성교양강좌	진도군청	진도학당			
공군작전사령부				영광군청	여성주간기념식			
공군 제1비행단								

웃으며 살자

2011년 금년은 신묘년(辛卯年) 토끼의 해다. 한국을 비롯한 동양 고전에 등장하는 토끼는 작고 약해보이지만 꾀가 많아 언제나 재치있게 위기를 모면한다. 또 다른 설화에서는 한 번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는 은혜를 갚고, 자기보다 큰 동물들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의 해결사로 등장하기도 한다. 호랑이 같은 맹수에 비하면 토끼가 약한 동물임은 물론이다. 하지만 재치와 꾀로 힘 센 동물들에게 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이용한다. 약자를 보호하고 이익을 얻는 존재로 각광받기도 한다.

이러한 토끼의 해에 스마트한 지혜의 삶으로 우리 개인의 삶은 물론 국가의 삶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을 지혜롭게 활용하여 통일 국가의 꿈을 이루어 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신묘년을 맞이하여 지혜롭게 행복을 누리는 삶의 비결 중 하나로 '웃으며 살자'를 골라봤다. 웃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층 더 밝게 해준다. 예부터 우리의 조상들은 '웃으면 복이 온다'고 했다. 웃음꽃이 피는 인간관계나 가정생활이 더 밝고 행복해지는 것은 극히 자연스런 현상이다.

마더 테레사는 웃음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웃읍시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 남편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서로 서로 웃읍시다. 상대가 누구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웃으며 살면 서로를 위한 더 큰 사랑 속에서 자라가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지난해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세계 10위 안팎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지고, 이혼율과 자살률은 세계 최고에 달하는 한편, 저출산 고령화가 나라의 장래는 물론 현실마저 어렵게 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경제성장이란 허황된 꿈속에 살면서 가장 소중한 가치인 사랑과 웃음과 행복을 잃어가고 있다. 슬픈 현실이다. 누구의 잘못인가. 바로 우리들, 아니 내 자신의 잘못된 삶이 우리들의 슬픈 현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무엇이 우리의 슬픈 현실을 막아주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할까. <어린왕자>의 저자 생텍쥐페리의 웃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는 나치스에 대항하는 전투비행사로 활동하다가 전사했다. 당시의 흥미진진한 체험을 기록해 쓴 책 <The Smile>은 자서전에 가까운 작품이다.

생텍쥐페리가 포로로 잡혀 수용소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간수들의 눈치로 봐서는 자신이 그 다음날 처형될 것이 확실했다. 자신이 처형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뜻 모를 공포가 밀려왔다. 그는 한순간이라도 위로받기 위해 간수들의 몸수색 때 몰래 숨겨 두었던 주머니 속 담배를 더듬어 찾았다. 그러나 생냥은 이미 빼앗기고 없었다.

생텍쥐페리는 창살 넘어 간수를 향해 애원의 눈길을 보냈으나 간수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간수에게 큰 소리로 성냥불을 줄 수 없냐고 애원하다시피 말을 건넸다. 그제야 간수는 그를 향해 어깨를 으쓱하더니 사형수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려는 듯 담뱃불을 붙여주기 위해 다가왔다. 간수가 다가와 성냥불을 켜는 순간 간수의 눈은 생텍쥐페리의 눈과 마주쳐 떴지 못하고 있었다. 순간 생텍쥐페리는 간수에게 미소를 던졌다. 갑자기 왜 웃게 됐는지 그 자신조차도 알 수 없었지만 웃는 순간 죄수와 간수 두 사람의 마음과 혼 사이에서 전기 스파크 같이 일어난 것이 생텍쥐페리의 웃음이었다.

그의 웃음은 결국 감옥 창살을 넘어 간수의 입가에 웃음이 피어나게 만들었다. 두 사람의 웃음은 그치지 않았다. 생텍쥐페리는 계속해 웃으면서 상대를 간수가 아닌 '사람'으로 마음에 뻗어들였다.

"당신도 집에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소?" 갑작스러운 질문이 간수의 입에서 튀어나왔다. "그렇지요. 여기, 바로 여기에 내 가족들의 사진이 있어요"라며 생텍쥐페리는 사진을 찾기 위해 손을 더듬었다. 그 때 간수도 자기 아이들의 사진을 꺼내 보이며 자신의 계획과 아이들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생텍쥐페리의 얼굴은 눈물로 가득 채워졌다. 그는 다시는 가족들을 볼 수 없다는 것과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음을 고백했다. 간수의 눈에도 눈물이 흘렀다. 그 때, 간수는 아무 말 없이 감옥 문을 열고 그를 출옥시켰다. 그리고는 뒷길로 도시 외곽까지 안내하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이렇게 해서 생텍쥐페리는 사형을 면할 수 있었다. 순간적으로 던진 미소가 결국 그를 살린 것이다. 그렇다. 생텍쥐페리의 웃음은 계획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키는 자연스러운 연결고리였다.

토끼의 해를 맞이하여 인생에서 가장 값진 웃음으로 Better People Better World의 꿈을 실현해 나가고자 한다. 독자 제현의 깊은 이해와 협조,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해 본다. **장만기**

예수의 섬김 리더십
경영현장에 적용

크리스천 CEO들의 사회적 역할 다하도록 돕는 CLA 1기

크리스천 언론기관의 대표인 CBS(기독교방송)와 CEO 정기교육의 호시인 인간개발연구원이 지난해 10월 12일 개강한 '크리스천 리더스 아카데미(CLA, Christian Leaders Academy)' 과정은 예수의 섬김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을 기업경영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CEO들의 내면의 영적인 성장을 이끌고자 만들어진 국내 최고 품격의 AMP과정으로써 현재 성공적으로 1기를 진행 중이며, 3월 2기 개강을 앞두고 있다. 특히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김영길 한동대 총장, 송병락 서울대 교수, 이만의 환경부 장관, 유장희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방선기 이랜드 사목 등 최고의 강사진들이 강단에 섰으며, '찾아가는 서번트 리더십'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방문과 청와대 시찰이 있었다. 이 외에도 친선골프대회와 문화공연관람을 가졌으며, 캄보디아와 러시아 연해주 해외봉사시찰도 진행 중이다. 다채로운 프로그램 중에서 손목 전 농심 회장의 강연과 청와대 시찰행사를 지면을 통해 소개한다.
- 편집자 주

〈찾아가는 서번트 리더십 II〉

청와대 시찰 및 신우회와의 송년예배

청와대 시찰 및 송년예배는 12월 21일, 경복궁 만남의 장소에서 50여 명의 참가자들이 청와대 차량을 이용해 춘추문으로 입장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몇 번의 신분확인을 거쳐 입장했지만 삼엄한 경비와 달리 청와대 내부는 아름다운 전경과 함께 고요함과 진중함으로 가득했다.

일행은 청와대 홍보관에서 브리핑, 이명박 대통령과 영부인의 영상메시지를 시작으로 청와대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인 녹지원으로 이동하였다. 잘 가꾸어 놓은 잔디밭은 청와대의 푸름을 더해주었다.

청와대 옛 본관 자리인 경무대 터는 경복궁 후원의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몸을 녹인 후 청와대 본관으로 향했다. 우리나라 건축양식 중 가장 격조 높고 아름답다는 팔각지붕을 올리고, 약 15만 장의 한식 청기와의를 사용했다.

본관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대규모 회의와 외국 국민들을 위한 공식행사를 개최하는 건물인 영빈관을 둘러보았다.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5년간 정치국장으로 근무한 권기식 본원 원장과 청와대 본관에 사용된 기와의를 만든 임오혁 금성기와의C&S 대표의 자세한 설명이 곁들여져 더 뜻깊은 시간이었다.





2



3



4

1. 청와대를 방문한 CAL 1기
2. 찾아가는 서번트 리더십-청와대시찰
3. 찾아가는 서번트 리더십-인천국제공항공사
4. 손욱회장

마지막으로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심장부인 청와대를 중심으로 역대 대통령들의 발자취와 수도 서울의 발전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청와대 사랑채를 방문해 재현된 대통령 집무실을 둘러보는 등 전시물을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청와대 부속청사 대강당에서 진행된 송년예배는 지난 1992년 10월 31일 청와대에 근무하는 비서관, 경호관 등을 중심으로 창립된 청와대기독교신우회와 CLA 원우들이 함께 참석하여 박선희 소망교회 목사의 설교와 조용근 원우회 회장의 기도로 경건하게 진행되었다. CLA와 청와대 신우회는 2기 과정에도 청와대를 방문해 함께 예배드릴 것을 기약했다.

CLA 화제의 강연

십이지(十二支) 경영으로 행복한 사회 만들자

손욱 전 농심 회장 /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초빙교수

십이지(十二支)는 천간과 함께 간지를 이루며, 자(子), 축(丑), 인(寅), 묘(卯), 진(辰), 사(巳), 오(午), 미(未), 신(申), 유(酉), 술(戌), 해(亥)를 말한다. 우리 조상들은 후손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12가지 동물에 각각의 교훈을 심어 놨다. 12가지 동물의 특성을 경영에 빗대어 생각해 보면 인간경영, 기업경영, 국가경영에 필요한 요체들이 각각의 동물에 들어있음을 알 수 있다.

1. **자(子) - 쥐** 쥐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알아채고 빨리 도망간다. 즉,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에 맞는 대응과제를 찾아낸다. 인생을 살아가고, 기업을 경영하는데 있어서 변화 또는 위기가 왔을 때 상황을 인식하고 대응책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 **축(丑) - 소** 소는 여물을 먹을 때 되새김질을 한다.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찾기 위해선 소처럼 느긋하게 앉아서 되새김질을 반복하여 진짜 원인이 나올 때까지 문제를 파야 한다.
3. **인(寅) - 호랑이** 결단력의 동물이다. 호랑이는 새끼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 절벽 아래로 집어 던진 후 기어 올라오는 새끼만 키운다. 경영에 있어서도 위기 또는 문제의 수많은 원인 중 몇 가지를 잡아 해결하는 결단력이 필요하다.
4. **묘(卯) - 토끼** 토끼를 잡기란 상당히 어렵다. 토끼는 항상 잠재문제가 불쑥 튀어나올 것을 대비한 대비책을 마련해놓으며 산다. 우리들 또한 잠재문제를 미리 알아뒀서 대비책을 세워놓고 일을 해야 한다.
5. **진(辰) - 용** 용은 이 세상에 실존하지 않는 동물, 즉 꿈, 비전, 목표를 상징한다. 우리는 꿈을 키우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핵심 역량을 키워야 한다.
6. **사(巳) - 뱀** 뱀은 때 맞춰 허물을 벗는다. 허물을 벗지 않으면 죽는다. 이 세상이 변화하면 꿈도 비전도 핵심역량도 바뀌어야 한다.
7. **오(午) - 말** 하나님은 천리마에게 달리는 역량을 줬듯이, 인간 개개인에게도 각기 다른 역량이 있다. 약점은 덮어주며 강점을 보고 인재를 써야 한다.
8. **미(未) - 양** 양은 화합과 배려의 동물이다. 인재들을 모아놔야 서로 소통을 하고 화합을 해야 한다.
9. **신(申) - 원숭이** 원숭이는 신기한 행동을 하면 따라하려고 한다. 이는 모방이 아닌 창조적 도전이자 창조적 변화의 시작이다.
10. **유(酉) - 닭** 닭이 아침에 울면 그 시간에 일어나고 하루가 시작되듯이 닭은 법과 질서를 의미한다. 법과 질서가 없이는 아무런 역량도 발휘할 수 없다.
11. **술(戌) - 개** 개는 신뢰의 상징이다. 모든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모든 조직과 과정과 인간 삶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12. **해(亥) - 돼지** 돼지는 열심히 먹지만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베풀고 간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다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야 한다.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다.

십이지 경영을 통해 행복한 나라,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조상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준 큰 교훈이다. 십이지 경영을 잊어버리지 말고 잘 기억해서 각자의 삶 속에 적용시키길 바란다.

Christian Leaders Academy 2기

크리스천 언론기관의 대표인 CBS(기독교방송)와 CEO 정기교육의 효시인 인간개발연구원은 지난해 8월 전략적 업무제휴에 이어 크리스천 CEO AMP 과정을 시작으로 리더십, 문화, 커뮤니케이션,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개발 및 영성강화를 위한 내용들로 양적인 성장보다는 크리스천 CEO들의 내면의 성장을 이끄는 국내 최고 품격의 AMP과정을 만들어 1기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대표적인 크리스천 기업인과 고위관료, 저명인사 등을 강사로 초빙하여 '예수의 섬김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을 기업경영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사회지도층 크리스천들이 개인의 발전은 물론 우리 사회와 국가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며, 크리스천 리더들을 네트워크화 하여 우리 사회에서 가치 있고 영향력 있는 오피니언 리더 그룹으로 발전시켜 국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이에 2기를 개강하오니 크리스천 리더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CBS 기독교방송 | 인간개발연구원

사장 **이재천** 회장 **장만기**



1 · 2기 강사진

김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김우현 남이섬 사장

곽영훈 사람과환경그룹 회장

김광석 참존화장품 회장

김동기 고려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

김상훈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김수룡 도이치은행그룹 한국회장

김수홍 인천대교 사장

김승규 아가페재단 운영위원장/전 법무부 장관(섭외중)

김영길 한동대 총장

김장실 예술의전당 사장

김준규 검찰총장(찾아가는 서번트 리더십)

김창욱 퍼포먼스스레이닝연구소 소장, CBS 만사형통 진행자

박선규 문화체육부 차관

박은태 인구문제연구소 소장

박종원 한국재보험 사장

방선기 이랜드 사목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찾아가는 서번트 리더십)

송병락 서울대 명예교수

손 욱 전농심 회장/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초빙교수

송 자 명지학원 이사장

양병무 재능교육 사장

오다케 요시키 일본 AFLAC 창업자

유장희 국민경제지문회의 부의장

이동원 지구촌교회 목사

이만의 환경부 장관

이배용 국가브랜드강화위원회 위원장

이승한 흠플러스그룹 회장

이어령 중앙일보 고문

이웅상 한국창조과학회 회장

이장로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이재포 CBSi 사장

이재욱 인천공항공사 사장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외국인진료소 소장

전광우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섭외중)

정창영 삼성언론재단 이사장

정태기 목사, 크리스천 치유상담원 원장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

조동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조서환 세라젬H&B 사장

조용근 한국세무사회 회장

조운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최강홍 한국표준협회 회장(섭외중)

최일도 다일공동체 대표

크리스천 CEO, 서번트 리더십으로 세상을 바꾸다

- 일 정 : 2011. 3. 8 ~ 7. 12 (매주 화요일 저녁)
- 시 간 : 18:30 ~ 21:20 (석식 18:30 / 1강 19:10 / 2강 20:10)
- 장 소 : 팔레스호텔 12층 스카이볼룸 (반포동)
- 주 최 : CBS, 인간개발연구원
- 대 상 : 크리스천 CEO, 오피니언 리더 50명
- 과정내용 : 명사특강, 기업 방문시찰, 골프대회, 문화이벤트 등

Session I 이제는 영성의 시대

- 1회차 3/08 개강예배 / 오프닝 강연 : 예수의 섬김 리더십
- 2회차 3/15 주제특강 : 글로벌 경제위기와 대응전략 / 경제특강 : 세계 경제전쟁, 한국인의 길을 찾아라
- 3회차 3/22 비전특강 :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가? / 인재전략 : 21세기 인재상
- 4회차 3/29 경제특강 : 기독교적 경제학과 부의 철학

Session II 서번트 리더는 무엇이 다른가?

- 5회차 4/05 찾아가는 서번트 리더 I : 대검찰청 방문 및 검찰총장 강연
- 6회차 4/12 나눔경영 : 나눔은 결국 우리를 위한 부메랑이다 / 자기경영 :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내적 치유의 힘
- 7회차 4/19 경영전략 : 위기의 시대 생존하고 싶다면 미래 트렌드를 선점하라
미래전략 : 세계 미래학자들이 본 한국의 미래
- 8회차 4/26 문화경영 : 가치있는 문화와 리더의 역할 / 트렌드경영 : 2011 새로운 소비와 경영 트렌드
- 9회차 5/03 경영전략 : 강한 기업에서 좋은 기업으로... / 나눔경영 : 함께 나누는 세상
- 10회차 5/10 Christian Leaders Academy 골프대회
- 11회차 5/17 찾아가는 서번트 리더 II : 청와대 방문 및 신우회와의 만남

Session II 서번트 리더십으로 세상을 움직여라!

- 12회차 5/24 경영특강 : 기업 그 존재의 의미 / 리더십 : 셀프 모티베이터가 되자
- 13회차 5/31 인재전략 : 사람을 통한 새로운 가치창조
직장선교 : 크리스천 직장인의 일터신학
- 14회차 6월 첫주 <해외봉사> 캄보디아 봉사탐방단 / 러시아 봉사탐방단
- 15회차 6/14 행복경영 : 행복의 시작은 가족 / 그린경영 : 녹색 성장과 창조세계
- 16회차 6/21 변화경영 : 꿈과 비전, 그리고 미션의 실행전략
미래전략 : 손안의 작은 세계, 스마트 세상을 잡아라
- 17회차 7/05 크로징강연 : 지성에서 영성으로
- 18회차 7/12 종강식 : 크리스천 문화예술인 초청의 밤 : 사랑나눔 이벤트

※ 확정일정은 홈페이지(www.cla.or.kr)를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기적의 역사 조명할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옛 문화체육관광부 청사에서 착공식 열려



1 착공의식 2 희망메세지 달기 3 유인촌 문화부 장관 착공식사 4 김진현 건립위원장 기념사 5 김황식 국무총리 치사 6 신달자위원 축사낭독 7 대 한민국역사박물관 조감도



고난과 역경 속에서 발전한 자랑스러운 기적의 역사를 기록하고 후세에 전승하며, 국민의 자긍심 고양 및 국민 통합으로 국가 미래 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건립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위원회(위원장 김진현)는 11월 25일 (목) 오전 10시부터 광화문 옛 문화체육관광부 청사에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착공식을 갖고 첫 삽을 떴다.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관계 주요 인사, 독립·정부수립 유공자와 참전·민주화 관련 인사, 과독 광부·간호사, 경부고속도로 건설 관계자, 60~70년대 구로공단 근로자, 해외파병 군인, 청소년단체 대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등 국가 발전에 헌신한 각계의 국민, 사회·문화 단체와 역사단체 주요 인사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한 착공식은 축사와 기원무, 전통적 티다지기 착공의식과 국민합창단 공연이 열렸다.

사전 행사로 옛 문화체육관광부 청사를 개방하여 청사 이력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모습을 사전에 관람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전시시설이 마련되기도 했다. 식후 행사로는 '역사의 나무'에 희망메시지 달기 이벤트와 착공식 참석자뿐 아니라 광화문 일반 시민들과의 만남과 교류의 장도 마련되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지난 2008년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 기적의 역사를 기록하고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역사박물관을 짓겠다고 공표한 이후 추진된 사업이다.

대한민국 기적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신달자



6



7

전시공간은 대한민국 태동, 대한민국 기초 확립, 대한민국 성장과 발전, 대한민국 선진화 및 세계로의 도약이라는 4개의 대주제와 13개의 중주제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전시관 내부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관련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망라한 실물 전시와 함께 세계 수준의 정보기술(IT)과 문화기술(CT)이 융합된 미래형 첨단 전시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한민국 발전사의 다양한 장면을 소개할 계획이다.

김진현 건립위원장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발전해 온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록하고 후세에 전승하는 한편, 국민의 자긍심을 고양하여 국민 통합으로 국가 미래 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건립 취지에 맞게 대한민국 역사와 발전상을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스토리와 감동이 있는 전시 공간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H&M**

오늘 거대한 역사 하나를 새로 쓴다
 오늘 거대한 조국 하나가 우뚝 선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비로소 내 어머니의 나라 내 아버지의 나라
 구름 낀 역사를 활짝 벗기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운다
 백두대간을 짊어지고 즐기 즐기 뻗어 온 반만년의 역사를
 가장 슬기롭고 가장 역세고 가장 부지런한
 이 나라 이 조국의 험형한 역사를 지구의 중심에
 햇불처럼 우뚝 세운다
 세계가 주목하는 빛나고 장엄한 기적을 여기 세운다
 우리들이 살아 온 그대로 살 터지고 핏 고인 맨살 그대로
 역적으로 매달리며 새로운 내일을 건설해 온 의지와 도전 그대로

가난이 있었다
 굶주림이 있었다 어둠의 날에서 풀려난 광복이 있었다
 전쟁의 피바다가 있었다 이념의 갈등이 있었다
 다시 가난이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의지가 있었다
 분발과 도전만이 무기였었다
 경제성장 새로운 변화를 창조하는 교육 문화가 있었다
 예술이 눈을 부릅뜨고 있었다
 그렇다, 극복과 성취와 대한민국의 정신이 우리 모두의 애국이 있었다
 강철도 녹이고 강물도 멈추게 하고 자신의 몸을 던지던 아버지 어머니
 피땀은 애국으로 뭉치는 아들과 딸이 대한민국을 외치며 서로 안고 우는
 세계 속의 주인공 대한민국 사람들이 있었다

장하다 자랑스럽다 대한민국이여
 오직 의지와 변복이는 정신을 맨손에 들고 달려왔느니
 인간의 투지 인간의 사랑 인간의 희망이
 이 땅의 맑고 환한 피를 만들어 내고
 빈 배들은 만선의 기쁨으로 돌아오고
 날아갔던 새들도 다시 돌아와 동지를 들고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이 번뜩번뜩 빛나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자신의 목소리로 살아 움직이고
 풀길 막연했던 빙벽을 탐과 열정으로 녹이는
 이것은 대한민국의 기적이 아니다 세계의 기적 인류의 기적이다

보라
 우리의 역사는 아프지 않다 우리의 역사는 신음하지 않는다
 우리의 역사는 침묵하지 않는다
 쓰러졌지만 일어섰고 일어서서는 견고 걷다가는 달리고
 결국은 나르고 나르는 우리의 역사는 존엄하고 위대하다
 보라
 바로 이 영광의 역사를 우리 대한민국 모두가 함께 이루어 냈다
 너와 내가 우리 다함께
 눈물을 황금으로 바꾼 찬란한 역사를 만들어 냈다
 한강도 춤추고 백두대간이 일어서서 함성을 지르며 기뻐하고
 잠자던 역사의 이야기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어 제 자리에 앉으니
 보라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들과 딸이 모두 손잡고
 여기를 보라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을 배부르게 마시라
 대한민국 국민의 정신을 눈부시게 느껴라
 아 아 대한민국 기적의 역사를 지구의 중심에 능글능글 세운다

정성현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이사장

제683회 전남 장성군 '21세기 장성아카데미'

11월 18일(목)

정리 · 정용달 팀장 (dal2020@khdi.or.kr)

전쟁과 대결에서 평화와 생명으로

본원은 1995년부터 전국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공직자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지방자치가 발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첫 번째 아카데미 프로그램인 전남 장성군(군수 김양수)의 '21세기 장성아카데미'는 사회교육의 대표 브랜드로서 전국의 자치단체에 새로운 아카데미가 개강하는데 산파 역할을 하는 등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지만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이라는 신념이 일구어낸 값진 성과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원과 장성군은 장성아카데미의 전통을 이어갈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하는데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지자체특강에서는 “전쟁과 대결에서 평화와 생명으로”를 주제로 강연해주신 정성현 이사장의 강연을 소개하는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 정성현 이사장

1946년 생으로 고려대를 졸업했다. 한국가톨릭농민회 사무국장, 우리밀 살리기 운동본부장, 대통령직속 농어촌발전위원회 위원, 농협중앙회 이사, 생협법 입법추진위원장, 환경운동연합 21세기 위원장, 연어사랑시민모임 공동대표 등으로 활발한 시민사회 운동을 펼쳤다. 현재 남북 강원도협력협회 이사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나는 지금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에서 일하고 있다. 12사단이 있는 이곳은 최전방이다. 지난 천안함 사태 이후 엄중한 정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민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 남북관계는 여전히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여러 이야기가 오가고 있어서 내년에는 바람직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

역사적 성찰로 현실 대응해나가야

오늘의 주제는 “전쟁과 대결에서 평화와 생명으로”이다. 우리 사회 전체가 평화와 생명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올해는 한일 강제병합 100주년이 되는 해이자 전쟁을 겪은 지 60년이 되는 해이다. 이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역사적인 반성과 함께 전환점이 되는 해이기를 소망했지만 오히려 전쟁의 조짐까지 보이는 현실이 안타깝다.

흔히 ‘역사는 되풀이 된다’라는 말을 하는데,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 사람에게에는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다. 다만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에게는 아픈 역사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역사에서 제대로 된 교훈을 얻었을까? 우리의 현실을 그렇지

못하기에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이 아닐까? 일본은 1854년에 개항을 하고 우리는 1876년에 강제 개항을 했다. 그런데 일본은 다른 나라를 침략할 정도의 국력을 가진 반면, 우리나라는 왜 침략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가 숙고해 봐야 할 문제이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내우외환이라고 하는데, 외적이 무섭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는 내부에 있으며, 그 문제 해결의 열쇠 또한 내부에 있다. 안팎을 두루 살펴야 하지만 내부가 더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큰 흐름으로 세계를 살펴보자. 19세기 중·후반 우리나라가 강제 개방되면서 주변의 대륙 세력과 해양세력이 세 번 충돌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해양세력의 선두인 일본이 승리를 거뒀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20세기 중반에는 미국과 소련이 간섭해 대한민국의 분단으로 귀결되었고 곧 전쟁으로 연결되었다. 외세에 의한 해방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해방은 커녕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38선을 기점으로 나눠먹기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의 자율공간이 전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북 양측에는 다른 정부가 세워졌고, 바로 2년 뒤에 전쟁으로



치달았다. 이러한 20세기 초의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충돌은 지금까지도 우리 동포 전체에 피해를 주고 있다.

그리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양립하고 있다. 이 양립 상황을 우리가 슬기롭게 헤쳐 나가서 주동적으로 운명을 만든다면 대한민국 또는 한민족 전체는 웅비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양립 상황에 종속된다면 남북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과거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 지난 8월, 중국의 환구일보가 누리꾼들을 대상으로 '중국과 한국이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까?'라는 여론조사를 했는데, 1만 4500여 명의 누리꾼들 중 94.5%가 '대한민국을 힘으로 굴복시켜야 한다'고 답했고, 5.5%만이 '대화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한국은 다르다. 같은 질문에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90% 이상이었다. 즉, 같은 문제에 대해 중국은 힘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우리나라는 대화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양립하고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미국이 진영을 다시 짜고 있는 것은 우리의 운명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역사적 성찰에 의한 대응을 해야 한다.

역사적인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 우리는 분열했고, 부패했고, 폐쇄적이었고, 외국에 대해 무지했다. 이 4가지 때문에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고 남과 북으로 갈렸다.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 분열에서 통합으로 가야하고, 부패에서 청렴으로 가야하고, 폐쇄에서 개방으로 가야하며, 제대로 공부해 외국에 대한 무지를 해소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다.

현실 직시하고 위기 인식해야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이 될 정도로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한국 속의 세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국에 살고 있는 120만 명의 외국 노동자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우리는 세계 속의 한국에만 관심이 있을 뿐 한국 속의 세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통일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북한 동포를 아우르고 포용하면서 같이 가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조차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 탈북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70%가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다고 답했다. 이런 점이 바로 우리가 극복하고 반성해야 할 모습이다.

평화와 생명의 땅으로 가기 위한 두 번째 방법으로 우리는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현 좌표를 잘 확인해야만 목표를 정하고 방향을 잡아서 갈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목표 없이 혹은 낮거나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표류하고 있다. 이 상황을 극복해야만 한다.

또한 지금이 위기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이것은 수치상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다. 총체적이고 전면적이고 다중적인 위기이다. 올해 배추 파동이 있었는데,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 때문인데, 이에 대한 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하늘이 기후변화의 징후를 미리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한 유통구조의 문제로만 치부하고 말았다. 이처럼 현실 자체에 급급한 것이 문제이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따질 때 지구 생명의 위기임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경제, 사회, 정치적 위기도 문제다. 경제의 토대가 약해지고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출을 조금 더 하는 것에만 치중하고 있다. 우리나라 에너지 자급률은 3%, 식량자급률은 26%밖에 되지 않는데, 이는 경제의 위기 이전에 토대의 위기이다. 즉, 사회가 근본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

전통 가치관 위에서 서양 세계관 수용해야

이에 우리는 가치부터 따져봐야 한다. 가치를 따지기 위해서는 세계관을 따져야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좋은 세계관을 등한시하고 다른 나라의 세계관만을 차용해 쓰고 있기 때문에 현재 겪고 있는 문제를 헤쳐 나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 우주를 음양오행으로 봤다. 일원론적으로 이 세계를 본 것이다. 따라서 모든 생명은 하나이며 연결되어 있다. 불교적 세계관과 비

슷한 이러한 세계관이 현재 지구생명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

동학에서는 3가지를 공경해야 한다고 했다. '경천은 하늘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고, '경인'은 사람을, '경물'은 물건을 공경해야 한다는 말이다. 물건을 공경하는 세계관과 가치관이 있다면 쓰레기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지구상의 문제를 서양의 신과학 유기체적 세계관, 심층생태학 등으로만 풀어나가려는 자세는 잘못되었다. 우리의 훌륭한 가치관을 토대로 서양의 세계관을 받아들여야 한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결코 타인을 소중히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것을 소중히 하면서 다른 나라의 것을 받아들여야 드높은 문화를 창조할 수 있다.

훌륭한 세계관이 있을 때에는 나라가 융성했으나 다른 나라의 것만 받아들이다보니 국력이 약화되고 외세의 침략을 받았던 것이다. 호남학이라고 불려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19세기 호남지역의 후천개벽사상을 연구 발전시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큰 학문으로 만들어야 한다. 경북과 전남이 힘을 합쳐서 후천개벽사상을 연구하고 세계 인류문명의 한계를 타개했으면 한다.

역사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큰 작용이 있다. 장성아카데미도 그것을 겨냥한 것이 아닌지, 혹은 앞으로 그런 것을 겨냥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전남의 후천개벽사상과 경북의 후천개벽사상 및 유학사상을 접목한다면 대단한, 인류를 구원하는 사상까지 나올 것으로 본다.

위기 넘어 대전환의 시대 열어야

이러한 세계관과 가치관의 위기를 넘어서서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위기를 인식했다면 대전환을 해야 한다. 언제나 그 시대를 지배하는 지배가치가 존재한다. 또한 지향가치도 있다. '제1의 물질 시대', '제2의 물질 시대'에는 각각 그 시대의 지배가치를 넘어 지향가치를 추구했기 때문에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제3의 물질 시대' 즉, 후기 산업사회는 지식과 정보를 지배가치로 여기고는 있지만 지향가치가 적립되어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이다. 한국에서 그것을 생명과 평화라고 정의했고, 이것이 세계적으로 대세가 되고 있다. 세상을 자본과 노동으로만 본다면 양극화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해야 일시적 타협만이 있고 언제나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 우리의 세계관 자체가 이것을 넘어서야 한다. 세계관이 바뀌면 같이 살 수 있는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지식만이 전부는 아니다. 사람에게에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2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다. '제3의 물질 시대'의 가치가 지향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운동도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

우리는 통일이 새로운 문명을 촉진하고, 새로운 문명이 통일을 촉진하는 관계 속에서 통일된 새로운 문명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통일은 세부적인 계획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첫째로 중요한 것은 내부통일이다. 어떻게 돈을 모금해서 추위에 떠는 북한 인민들에게 가져다줄까를 고민하는 것은 내부통일이 아니다. 돈을 모금해서 남측에서 연탄을 사지 못해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지원한 후 북측에 가져다주는 것이 내부통일 방식이다. 이런 방식이어야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남측의 소외되는 사람들을 포용해야 진정한 통일이 가능하다.

둘째는 소통일이다. 서로 대화로 신뢰를 쌓고 평화체제가 되어 통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가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통일을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맞는 통일을 기다리다 보면 또 몇 십년간 분단의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준비상태에서 통일의 조짐이 보이면 바로 통일을 하는 것이 소통일이다. 체제 문제는 통일된 후에 고민해도 된다. 비상사태에서 통일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고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적당히 타협해 변형된 한반도 사태를 다시 만들 수도 있다. 소통일이 중요한 이유이다.

대통일이라는 것은 영토적 통일이 아니다. 우리는 해외 각국에 퍼져 나가있는 한민족과 함께 통일을 해야 한다. 즉, 우리의 통일은 소통일과 대통일의 역동적인 통일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경제 강국을 넘어서 생명의 나라, 평화의 나라, 문화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성장방식이 계속 통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외치는 녹색경제가 아니라 완전한 생명의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 또 물질 중심의 흐름에서 문화를 중시하는 나라, 그것이 우리가 생명과 평화를 지향가치로 하는 구체적인 사회모습이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구체적인 2가지 과제가 있다.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룬 것은 교육의 힘 덕분이다. 그러나 앞으로 대한민국 발전에 장애가 생긴다면 그 또한 잘못된 교육 때문일 것이다. 이 잘못된 교육이 10여 년간 지속되고 있다. 탁상공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생명과 통일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벽'을 해야 한다. 혁명 수준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우리나라는 변할 것이다. 교육을 개혁하지 않는 한 새로운 문명은 오지 않는다.

또 하나는 협동조합 경제와 자유주의 경제가 맞물리는 부분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튼튼한 사회가 된다. 이런 다중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튼튼한 사회가 될 수 있다. 교육을 개혁하고 다중경제, 특히 협동의 경제와 공동체 경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회가 된다면 세상은 훨씬 살기 좋아질 것이며, 이것이 주류가 된다면 우리는 전쟁과 대결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

주어지지 않고 만들어 가는 미래



저는 기자 생활의 8할을 정치부에서 보냈습니다. 제 직업적 목표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2006년에 펴낸 <2007 대선 승자는 누구인가>였습니다. 1987년 이래 5명의 대통령이 탄생하는 과정을 추적해 일종의 집권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집권의 3대 변수는 '인간', '환경', '전략'이며, 각 변수 당 7개의 요소가 있더라고요. 3대 변수×7개 요소=21개로, 말하자면 "한 인간의 집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21가지이다"라는 주장을 했던 것이죠.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매력적인 일입니다. 운명을 훑쳐보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이며 부와 기회와 명성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드는 <중앙SUNDAY>에는 세계적인 미래 학자의 칼럼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의 예측 이야기가 최근 저의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짐 데이터라는 하와이대 교수인데요, 35년간 이 분야에 몰두해 미래학계의 대부라는 별명이 붙은 사람입니다. 앨빈 토플러와 1977년 '대안미래 연구소'를 만든 분이죠.

그는 "미래를 예측하는 건 거짓말이다. 우리는 미래에 관한 이미지를 갖고 있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더군요. 예언가나 역술가처럼 '미래를 미리 보여준다'는 건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대신 미래학의 역할을 '좋은 미래를 인간이 개척해 나가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의 얘기를 좀 더 들어 볼까요. "미래학은 복수의 미래를 구상한다. 앞으로 올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가지 미래를 조사해 제시한다. 그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미래(desirable future)를 찾아내고 그 방향으로 현실을 끊임없이 설계해 나가는 게 미래학이다. 현실의 설계에 대해서도 계속 평가를 내려야 한다."

결국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란 얘깁니다. 짐 데이터의 칼럼을 편집하면서 예측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생각에 미쳤습니다. 자기실현적 예측(self-realizing prophecy)과 자기방해적 예측(self-defeating prophecy)입니다. 자기실현적 예측은 현실을 움직여 예측된 미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자기방해적 예측은 현실을 움직여 예측된 미래를 무산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2007년 대선승자를 예측하는 앞의 제 책에서 '한나라당의 집권은 이명박과 박근혜의 승복여부에 달려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대선후보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패자가 승자에 불복하고 당을 뛰쳐나가면 보수의 분열 때문에 한나라당은 집권에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죠. 이런 예측은 한나라당 사람들에겐 자기방해적 예측으로 작용했습니다. 당시를 메이커였던 강재섭 당 대표가 했던 현실의 행동들은 예측된 미래를 무산시키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었습니다.

콜레스테롤에도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듯이 예측에도 좋은 예측이 있고 나쁜 예측이 있습니다. 자기실현적 예측이든 자기방해적 예측이든 인간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는 예측은 좋은 예측입니다. '나는 운명에 개입할 수 없다, 주어진 길을 받아들일 뿐'이란 사고방식은 어떤 예측도 나쁜 예측으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짐 데이터는 특별히 도구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신기술은 새로운 행동양식을 창조하고, 그 행동양식이 특정한 미래를 낳는다는 것이죠. 도구는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신비한 존재입니다. 신기술을 흡수하고 운명에 개입함으로써 좋은 미래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



성공신화를 만들어 갑니다

그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던 극한기술, 공업용 다이아몬드와 일렉포일의 개발로

세상을 놀라게 한 일진의 도전이 에너지, 환경 및 신소재 분야로 이어집니다.

일진에게는 더 큰 내일이 보입니다. 더 넓은 세계가 보입니다.

미래창조기업





당신에겐 트레비카드가 있습니까?

세상이 당신을 존경하는 방법, 롯데호텔 - 트레비클럽
언제 어디서나 대우받으셔야 하기에 트레비클럽이 당신을 예우합니다.

트레비클럽
특전

전국 모든 롯데호텔에서 바&레스토랑 10~33%, 객실 30~35%,
수영장, 사우나, 실내골프장 20~4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문의 02.317.7231~3

LOTTE HOTEL RESORTS
TREVI CLUB

903 5244 0150 1108
Kil Dong Hong 00/02

ACI 공항서비스
5년연속 세계1위

Skytrax 선정
세계 최우수공항

글로벌트래블러 선정
세계최고공항 5년연속 1위

비즈니스트래블러 선정
세계최고 공항상

에어카고월드 선정
항공화물 최우수공항

CAPA 선정
올해의 공항도시상

Route Development Group 선정
동북아 항공마케팅 최우수 공항상

뭔가 다른 공항, 인천국제공항

신속하고 편리하며 안전한 공항, 문화와 예술의 향기가 나는 공항, 혼이 살아 숨쉬는 공항

세계 1등 공항 인천국제공항, 전세계 1,700개 공항과 경쟁하여
5년 연속 공항서비스 세계 1위, 공항분야의 노벨상 수상!

인천국제공항이 세계 리더 공항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드높여 가겠습니다.